

## 머 리 말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화목하게 살아온것은 단일민족인 우리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더없는 자랑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어생활에서 우리 말과 문화어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옹계 살려나가는 것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발양하고 나아가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특히 타민족의 언어권에서 생활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흔히 언어를 가리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고 밖에 내비칠수도 있게 하는 《창문》이라고 하는데 이 역땅 그 어디에서나 동포들사이에 한피줄을 나눈 겨레임을 알게 하고 마음과 정을 통하게 하는것이 바로 고유한 조선말인것이다.

조선어의 표준은 민족의 본향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여 발



전풍부화된 평양말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민족고유의 감정정서가 그대로 어려있으면서도 건전하고 문명한 인간의 사상감정을 풍부히 표현하는 평양말이야말로 슬기롭고 순결한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더없는 재부가 아닐수 없다.

해외동포들모두가 조선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 민족 문화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나가자면 언어생활에서 우리것이 아닌 다른 말, 잡탕말이 끼여들지 못하게 하며 고상하고 세련된 평양문화를 널리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도서는 기초적인 회화능력을 갖춘 해외동포들이 보다 높은 단계의 회화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아름다운 평양말가운데서 사업과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과 표현들을 회화형식으로 서술하였으며 본문에 반영된 새 단어의 뜻해설과 일반적인 입말체표현구형, 입말체문장들을 대화형식으로 반쳐주고있다.

또한 조리있게 말하는 능력, 대상과 정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 감정을 원만히 표현하는 능력, 비유적으로 말하는 능력, 재미있게 말하는 능력 등을 실례를 들어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독자들의 견문을 넓혀주려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상식들과 유모아, 옛이야기들도 담고있다.

도서가 해외동포독자들에게 평양말을 사랑하고 널리 활용하여 조선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적으나마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인간생활이 복잡하며 언어생활 또한 매우 다양한것으로 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있게 될 경우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데 류의하면서 많이 리용해주기를 바란다.

2014년 8월

저 자

# 차 례

1. 가정에서	11
아침에 일어나서	12
알아두기: 《후에》와 《천천히》	13
상 식: 조선어의 표준인 평양말	15
식사를 나누며	16
유모아: 《놈》과 《사람》	18
틀린 말—옳은 말	19
출근시간에	20
알아두기: 《가겠습니다》와 《갈겁니다》	22
상 식: 평양의 이름난 음식	23
옛이야기: 단군신화	24
2. 길거리에서	27
동무를 만나서	28
알아두기: 이름을 부를 때	28
상 식: 언어와 민족성	30
안부를 물어보며	31
유모아: 남의 말을 따라하다가	33
상 식: 우스개소리는 생활의 윤회제	34

<b>길을 알려주면서</b> .....	36
알아두기: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37
상 식: 세계 여러 언어에서 《고맙다》의 뜻.....	39
우화이야기: 우물안의 개구리.....	40
<b>3. 정류소에서</b> .....	42
<b>빠스줄에서</b> .....	43
알아두기: 《안》과 《못》.....	45
상 식: 평양말의 우수성.....	46
<b>빠스에 오르면서</b> .....	47
유모아: 독서가들의 경쟁.....	49
틀린 말—옳은 말.....	50
<b>량해를 구할 때</b> .....	51
알아두기: 《꺼지다》의 의미.....	52
상 식: 《가슴》의 어원.....	54
실 화: 조국에 드리는 인사.....	55
<b>4. 직장에서</b> .....	58
<b>정문에서</b> .....	59
알아두기: 《수고하십시오》와 《수고하시겠습니까》.....	60
상 식: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글자.....	62

담화할 때 .....	63
유모아: 《아들》이 된 《남편》 .....	64
상 식: 《코레아》의 유래 .....	66
일터에서 .....	67
알아두기: 《귀엽다》와 《깜찍하다》 .....	68
상 식: 《신지글자》 .....	70
옛이야기: 동명왕릉과 농부 .....	71
<b>5. 식당에서</b> .....	74
식당을 찾아서 .....	75
알아두기: 《오랜만》과 《오래간만》 .....	76
상 식: 입말과 입말체 .....	78
식사를 주문하면서 .....	79
조선어성구 몇가지 .....	80
유모아: 귀맛좋은 인사말 .....	81
식당을 나서면서 .....	83
알아두기: 《어서 오세요》와 《또 오세요》 .....	85
옛이야기: 원숭이와 모자장사 .....	86
상 식: 《삼익우》와 《삼손우》 .....	87
<b>6. 공원에서</b> .....	88
공원을 찾아서 .....	89
알아두기: 《부탁드리다》와 《부탁하다》 .....	90

상 식: 《결초보은》의 유래 .....	91
<b>거닐면서</b> .....	93
유모아: 공정하게 분배된것 .....	94
상 식: 잡지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	96
<b>헤어지면서</b> .....	97
알아두기: 《말을 못하다》와 《말을 안하다》 .....	98
옛이야기: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	100
상 식: 《이름》의 어원 .....	100
<b>7. 전화할 때</b> .....	103
<b>문안인사</b> .....	104
알아두기: 《안녕하십니까》 .....	105
상 식: 《왼쪽》의 어원 .....	107
<b>주문하면서</b> .....	108
유모아: 먹으면 죽는 꿀 .....	109
틀린 말-옳은 말 .....	110
<b>약속</b> .....	111
알아두기: 《여보》와 《오빠》 .....	112
상 식: 세계에는 문맹자가 얼마나 있는가 .....	113
옛이야기: 문익점과 목화 .....	114

<b>8. 상점에서</b> .....	117
<b>들어보기</b> .....	118
알아두기: 소리같은 말 .....	119
상 식: 미주알고주알 .....	121
<b>물건을 사면서 (1)</b> .....	122
유 모 아: 어린애와 함께 .....	124
상 식: 《사돈》의 유래 .....	125
<b>물건을 사면서 (2)</b> .....	126
알아두기: 《-네요》와 《-어요》 .....	128
상 식: 우리 말 발음의 풍부성 .....	129
색채언어 .....	130
<b>9. 병원에서</b> .....	132
<b>진찰을 받으며</b> .....	133
알아두기: 《차다》와 《춡다》 .....	134
상 식: 《동문서답》의 어원 .....	135
<b>치료를 받으며</b> .....	137
유 모 아: 진 짜 재 간 .....	138
틀린 말—옳은 말 .....	140
<b>처방을 떼면서</b> .....	141
알아두기: 《돌가보》와 《가위바위보》 .....	142
상 식: 《겨레》의 어원 .....	144
옛이야기: 의좋은 형제 .....	145

<b>10. 운동장에서</b> .....	147
<b>운동하기 전에</b> .....	148
알아두기: 《쪽 냅시다》 .....	149
상 식: 《손없는 날》 .....	151
<b>운동하면서</b> .....	152
유모아: 두 장사군 .....	153
상 식: 표식표말의 유래 .....	155
<b>운동을 끝내고</b> .....	156
틀린 말—옳은 말 .....	157
일 화: 두꺼비 돌에 치우듯 .....	159
상 식: 국제 모국어의 날 .....	159
<b>11. 극장에서</b> .....	162
<b>관람표를 사면서</b> .....	163
알아두기: 《과세 안녕하십니까》와 《새해를 축하합니다》 .....	164
상 식: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	166
<b>관람하면서</b> .....	167
알아두기: 《처음 뵈겠습니다》 .....	168
유모아: 《아는걸 내놓고 다 몰라》 .....	169
<b>소감을 나누며</b> .....	170
알아두기: 《오레미》와 《올케》 .....	172



옛이야기: 놀고먹던 꿀꿀이 .....	173
상 식: 《공부》의 어원 .....	174

## 12. 동무의 집에서 .....

### 집앞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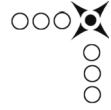
상 식: 말을 할 때 삼가해야 할 10가지 .....	176
조선어성구 몇가지 .....	178

### 이야기를 나누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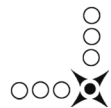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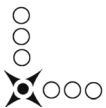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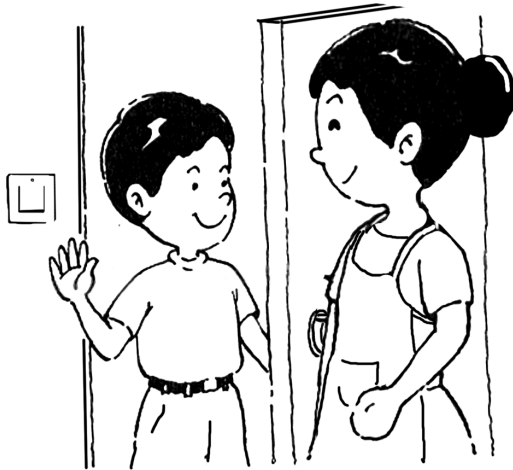
유모아: 부자와 화가 .....	180
속 답: .....	182

### 집을 나서면서 .....

알아두기: 《곶지 않습니다》와 《안 곶습니다》 .....	184
상 식: 옹고집 .....	186
수 기: 궁지 .....	187



# 1. 가정에서



## 아침에 일어나서

금 혁: 편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났니? 더 자지 않구.

금 혁: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해야 할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 그럼 세수부터 해라.

금 혁: 잠자리를 정리하구요.

어머니: 무슨 잠을 이렇게 갈개 자니?

금 혁: 제가 개졌어요.

어머니: 놔두고 어서 세수나 해라. 언제면 철이 들겠는지 원.

❖ 갈개 자다—몸을 마구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다.

잠자리를 깨다—잠을 잔 뒤에 이불과 포단을 접어 보기 좋게 만들다.

철이 들다—(사리를 가릴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으로) 어른이 되다.

◎ 잘 ...았다/었다/였다.

ㄱ: 어제밤 춥지 않았습니까?

ㄴ: 아니요, 잘 잤습니다.

○ 말해봅시다

ㄱ: 내게서 빌려간 책을 다 보았니?

ㄴ:

[보충회화]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습니까)

주 인: 편히 쉬셨습니까?

손 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주 인: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손 님: 아닙니다. 처음으로 발편잠을 잔것 같습니다.

주 인: 세면장은 아래층에 있습니다.

손 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돌아보는겸 몸을 좀 늘릴가 합니다.

주 인: 마침입니다. 같이 나가 운동이나 합시다.

▷알아두기◁

### 《후에》와 《천천히》

《후에》는 《다음에》 또는 《나중에》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시간이 나는 차례로》의 뜻을 나타내자면 《천천히》를 쓰는것이 좋다.

예: —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 후에 먹겠습니다. ×

○ 천천히 먹겠습니다. ○

- ❖ 발편잠을 자다-걱정없이 마음놓고 편안히 자다.  
 몸을 놀리다-① 팔과 다리, 허리부위 등을 움직이다.  
                   ② 운동을 하다.  
                   ③ 일을 하다.
- 돌아보다-① 여기저기를 관심하며 구경하다.  
                   ②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살펴보다.
- 겸- ...는것과 함께.
- 마침-① 생각했던바대로 그때.  
                   ② 어떤 기회에 알맞게.

[입말체문장]

- 이렇게 늦장을 부려서야 되겠어?(요, 습니까)
- 이거 못살게 구누만.(요)

례1: - 이렇게 늦장을 부려서야 되겠어?

- 인차 일어날게요.

례2: - 빨리 일어나요, 시간이 됐어요.

- 이거 못살게 구누만.

- ❖ 늦장을 부리다-행동을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하다.=늦장을 부리다.

인차-곧 빨리.

시간이 되다-어떤 일을 할 때가 되다.

못살게 굴다—다른 사람에게 자꾸 귀찮게 굴어 견디기 어렵게 행동하거나 대하다.

◎ 이렇게 …아야/어야/여야 되겠는가?

ㄱ: 이렇게 밤을 새워서야 되겠습니까?

ㄴ: 일감이 많아와서…

◇상식◇

### 조선어의 표준인 평양말

평양말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본보기로 하여 발전한 조선말의 전형이다.

해방직후부터 평양으로는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과 애국적지식인들, 남조선과 해외에서 살던 인사들이 모여와서 사업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우리 말의 우수한 요소들이 집대성되면서 아름답고 훌륭하게 다듬어진 언어가 바로 평양말이다.

평양말은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창조하고 가꾸어 온 우리 민족어의 우수한 언어소를 집대성하고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각지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좋은 민족어요소들도 반영하여 새롭게 발전시킨 민족어의 표준으로 되는 규범적인 말이다.

평양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조선문화어의 기초로 되는 기준말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문화어를 의미한다.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화어를 평양말이라고도 하고 평양문화어라고도 한다.

## 식사를 나누며

- 어머니: 애들아, 밥먹자.  
금혁: 예, 이제 가요.  
금희: 어서 들자요.  
어머니: 뭘 들여다보기만 하니? 들지 않구.  
금혁: 이젠 색다른 반찬이다.  
어머니: 맛봐라. 금희가 만든거란다.  
금혁: 금희가 이젠 제법인데.  
금희: 됐어요. 식사나 하자요.

- ❖ 어서—(재촉의 뜻으로) 빨리.  
들다—《먹다》를 점잖게 이르는 말.  
색다르다—① 보통때와는 다르다. || 색다른 행동, 색다른 말.  
② 다른것들과는 다르다. || 색다른 물건, 색다른 음식.  
제법이다—(손아래사람에게 쓰이어) 비교적 훌륭하다.  
됐다—그만하라. || 됐어, 됐어요, 됐습니다.  
◎ …나 하자.(다른 생각말고 그것 하나에 집중하자)  
ㄱ: 이거 우리가 다 먹어두 될가?  
ㄴ: 걱정말구 먹기나 하자. 저기에 또 있어.

○ 말해봅시다

ㄱ: 너 이 음식을 만들줄 아니?

ㄴ:

[보충회화]

구미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습니다.)

남 편: 자, 상에 나왔으십시오.

안 해: 별로 차린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손 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면 잔치라도 차리겠습  
니다.

안 해: 별말씀을...

어서들 드세요.

남 편: 해정하는셈 치고 한잔 합시다.

손 님: 전 원래 반주라는걸 모르는데 오늘만은 마시겠습니다.

남 편: 우리 집 음식이 구미에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손 님: 아닙니다. 제 입에 꼭 맞습니다.

❖ 별로—따로 특별히.

무슨 말을 하는가—상대방의 말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

별말씀—상대방의 말에 대한 가벼운 부정을 나타내는 말.

해정하다—전날에 마신 술기운(머리아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침식사전에 술을 조금 마시다.



반주-밥맛을 돋구기 위해 식전에 마시는 술.

입에 맞다(구미에 맞다)-① 음식이 식성에 맞다.

② 자체의 성질이나 특성에 맞다.

◎ ...는셈 치다.

ㄱ: 모두 사무실에 모이랍니다.

ㄴ: 차는 다 마셨군.

ㄱ: 마신셈 치지 뭐.

### 유모아

## 《눔》과 《사람》

옛날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마당에서 고기를 팔고있었다.

어느날 젊은 량반 두명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다.

첫번째 량반이 말했다.

《야 이눔아! 고기 한근 다오.》

《예, 그러지요.》

두번째 량반이 그에게 짐작게 부탁했다.

《이보라구 이사람, 고기 한근 주게나.》

《예, 그러지요.》

백정이 기분 좋게 대답하면서 고기를 듬뿍 잘라주자 첫번째 량반이 소리쳤다.

《너 이눔! 같은 한근인데 내것은 왜 이렇게 작아?》

《그거야 당신의 고기는 <눔>이 자른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사람>이 자른것이니까요.》

[입말체문장]

- 날더러 뭘 하라는거야?(요, 뽀니까)
- 우리가 하는걸 조용히 보고만 있으면 돼.(요, 뽀니다)

레1: - 날더러 뭘 하라는겁니까?

- 이걸 좀 봐주십시오.

레2: - 제가 도울건 없습니까?

- 우리가 하는걸 조용히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긱이나 보다가 뽀이나 들라(속담)

❖ 이걸-《이것을》의 준말.

긱이나 보다가 뽀이나 들라

(속담) - 《쓸데 없는  
간참을 하지 말고 가만  
히 있다가 차례지는것  
이나 받으라》는 뜻으로  
권고하여 이르는 말.

틀린 말-옳은 말

교사	교원
정류장	정류소
우체국	우편국
설탕	사랑가루
화장실	위생실
계좌	구좌, 돈자리
생수	샘물
안약	눈약
세제	세척제
음반	음악씨디

## 출근시간에

어머니: 애들아, 서둘러라. 8시다.

금 혁: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벌써가 다 뭐니?

금 혁: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금희야 나 먼저 가.

금 희: 같이 가자요.

금 혁: 늦었어. 뒤따라 와.

금 희: 조금만 기다려요. 다 됐어요.

어머니: 요런 멍꽁이라구야. 늦었다지 않니?

금 희: 무슨 딴 생각이 있는게 아니예요? 맨날 날 쪽 빼놓고.

❖ 벌써—생각보다 빨리.

다녀오다—목적한 곳에 갔다오다.

요런 멍꽁이라구야—(주로 처녀애들을 대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생각이 돌지 않는 막힌 사람》이라는것을 룡조로 낮잡아 이르는 말.

딴 생각— ① 다른 생각.

② (처녀, 총각에 한하여) 애인에 대한 생각.

맨날—매일.

쪽 빼놓다—그것 하나만 제외하다.

◎ ...가/이 다 뭐냐?(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ㄱ: 벌써 출근하세요?

ㄴ: 벌써가 다 뭐요?

○ 말해봅시다

ㄱ: 휴식을 잘했습니까?

ㄴ:

[보충회화]

지금 막 떠나려던 참이야.(요, 입니다)

철 근: 밤새 안녕하십니까? 제 아래층의 리철근입니다.

영 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전화를 다 합니까?

철 근: 언제 출근하려는가 해서 전화합니다.

영 만: 지금 막 떠나려던 참입니다.

철 근: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영 만: 난 대학거리로 갑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철 근: 바로 그래서 같이 가자는겁니다.

영 만: 길동무가 생겼구만요.

철 근: 그럼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 제-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이르는 말.

막-당장 또는 곧.

같이-함께.

길동무-동무삼아 같이 가는 사람.

밑에서—사물이나 건물의 아래 또는 아래쪽에서.

◎ 어떻게 ...를/을 다 하는가?(어느때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

ㄱ: 어떻게 걸어서 출근을 다 해?

ㄴ: 내 차가 고장났어.

◎ 지금 막 ...려던 참이다.(지금 당장 말이나 행동을 하려던 때이다.)

ㄱ: 식사는 했습니까?

ㄴ: 지금 막 먹으려던 참입니다.

▷알아두기◁

### 《가겠습니다》와 《갈 겁니다》

ㄱ: 그래 끝내 떠나겠단 말이지?

ㄴ: (저는) 갈 겁니다.×

(저는) 가겠습니다.(의지) ○

(저는) 꼭 가야 하겠습니다.(의지) ○

(저는) 꼭 가야 합니다.(과치못할 사정으로) ○

《가겠습니다》는 의지를 나타내지만 《갈 겁니다》는 추측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갈 겁니다》는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는 쓸수 없고 다른 사람 즉 3자에 대하여 말할 때에만 쓸수 있다.

ㄱ: 그래 동생이 병원에 갈것 같소?

ㄴ: 갈 겁니다.

[입말체문장]

— 이런 변이라구야!

○ 그것도 모르고 앓아있어?(요, 습니까)

레1: — 뭘 하고있어요? 출근시간이 다 됐는데.

○ 이런 변이라구야!

레2: — 이자까지 여기 있던 애가 어데 갔어?

○ 그것도 모르고 앓아있어요?

◇ 상식 ◇

### 평양의 이름난 음식

평양에서 이름난 음식은 평양랭면과 평양쟁반국수, 대동강송어국, 평양어죽, 평양온반, 소갈비구이, 뽕장어구이, 평양군밤 등을 들 수 있다.

평양랭면은 메밀로 만드는데 고국물(육수)에는 소고기나 닭고기, 참기름, 닭알, 버섯, 잣, 배 등이 들어가며 국수사리우에 여러가지 꾸미와 실파, 실교추를 놓아

보기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음식이다. 대동강송어국은 옛날부터 평양사람들이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던 특산음식인데 대동강에서 잡은 송어를 손질하여 남비에 넣고 소고기와 닭알, 고추장과 함께 끓인것이다. 평양어죽은 자그마한 가막조개에다 닭고기와 흰쌀을 넣고 쓴 죽인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다.

## 단군신화

지금으로부터 5천여년전에 있는 일이다.

그때 하늘세상에는 환인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 항상 하늘아래 인간세상에 내려와 살기를 원하였다.

어느날 아버지 환인은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다.

《너의 눈치가 항상 인간세상에 뜻을 두고있는듯 한데 내 말이 맞느냐?》

《네, 맞소이다.》

환웅은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하였다.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 너의 뜻대로 인간세상으로 내려가는것을 허락하니 내려가면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여라.》

환인은 아들이 내려가서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기 위하여 인간세상을 굽어보다가 기후가 온화하고 땅도 기름진 태백산으로 내려갈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증표로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천부인(임금의 도장같은것) 3개와 3천명의 신하를 주었다.

환웅은 아버지의 뜻대로 3천명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색구름에 실려 인간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큰 박달나무 한그루가 선 태백산의 어떤 산봉우리에 내려온 환웅은 그곳을 신시라 하였으며 스스로 왕이 되어 환웅천왕이라고 하였다.

환웅은 인간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홍익인간》 즉 사람에게 큰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뜻을 높이 내세웠다. 그리고 바람을 맡은 풍백, 비를

말은 우사, 구름을 맡은 운사를 비롯한 신들을 거느리고 농사와 사람들의 생명, 병, 형벌, 룬리도덕 등 360여가지의 일들을 맡아보았다.

바로 그러한 때에 태백산의 한 동굴에는 사람으로 되고싶은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곰과 범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곰과 범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였다.

《천왕이시여, 우리는 다같이 미물로 태어난탓으로 일찍부터 한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하는것입니다. 저희들의 소원을 풀어줄수 없나이까?》

환웅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곰과 범에게 각각 쑥 한뭉음과 마늘 스무쪽을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서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백날동안 굴에 엎디어 햇빛을 보지 말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사람이 될수 있으리라.》

《천왕님, 명심하겠나이다.》

곰과 범은 한결같이 환웅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굴로 돌아와서 쑥과 마늘을 먹었다. 그리고는 제각기 굴에 엎디어 사람이 되려고 있는 정성을 다하였다. 하지만 산과 들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짐승들을 잡아먹어도 성차지 않던 그들이 아직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쑥 한줌과 마늘 몇개로 살아간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땅바닥에서 일어설 힘도 없었다.

(사람이 되는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소원을 풀기도 전에 목숨이 끊어지겠다.)

범은 끝내 참지 못하고 굴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곶은 참고 또 참았다.

(평생에 품었던 소원을 푸는 일인데 어찌 쉬울수 있겠는가. 이대로 굶어 죽더라도 참고 견디리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솟았다.

곶은 끝내 쑥 한뭉음과 마늘 스무쪽을 먹으며 견디어냈고 너자의 몸으로 되었다.

너자로 된 곶은 사람이 되려던 소원을 풀었으나 날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갈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곶은 환웅이 내려왔던 박달나무아래에 다시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빌고 또 빌었다.

《이 몸은 환웅천왕의 자비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된바에는 뒤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몸을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적당한 배필을 무어주시고 자식을 낳게 해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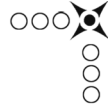
환웅은 곶의 꾸준한 치성에 감동되어 자기가 그의 짝이 되어주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곶은 마침내 태기가 있어서 열달만에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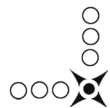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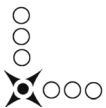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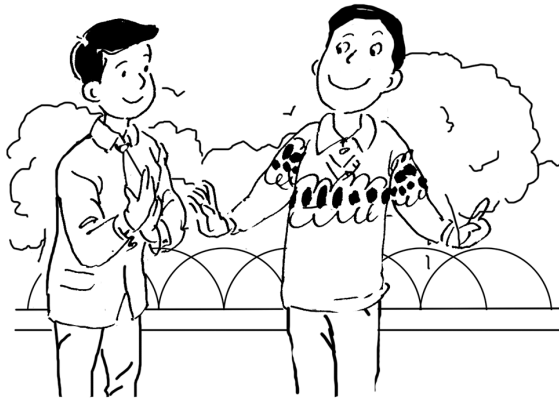
단군은 무럭무럭 자라서 나라를 세웠다.

단군은 나라이름을 어떻게 지을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조선》이라고 지었다. 조선이라는 이름에는 아침의 해를 제일먼저 맞이하는 동방의 해돋는 나라라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단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튼튼히 하고 선진문명을 가져다주었으며 민족을 빛내이게 하였다.



## 2. 길거리에서



## 동무를 만나서

금 혁: 남수!

남 수: 금혁이! 이거 오래간만이구만.

금 혁: 그새 잘 있었어?

남 수: 잘 있지 않구. 그래 집에선 잘들 있겠지?

금 혁: 그럼.

남 수: 어머니 여전하셔?

금 혁: 말끝마다 남수 남수 해.

남 수: 만나뵈지 벌써 한달이 되어오누만.

### ▷알아두기◁

#### 이름을 부를 때

서로 허물없는 관계에 있는 동무들이나 아래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뒤에 《동무》대신 이름이 모음으로 끝나면 다시말하여 이름의 마지막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이름그대로 부르고 자음으로 끝나면 즉 받침이 있으면 이름뒤에 《이》를 붙여 부를수 있다.

례: 영수동무!-영수!

영철동무!-영철이!

❖ 여전하다—이전과 다름이 없다.

말끝마다—말할 때마다.

◎ …지 않구.

ㄱ: 오늘 저녁 극장구경을 가지 않겠어?

ㄴ: 가지 않구.

○ 말해봅시다

ㄱ: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겠어?

ㄴ:

[보충회화]

거닐면서 얘기나 나눕시다.

영 만: 우리 밖에 나가 얘기나 나눕시다.

철 근: 좋은 생각입니다.

영 만: 집안사람들이 있는데서 너나들이 할수야 없지요.

철 근: 우리 집사람은 다 좋은데 눈치가 없답니다.

영 만: 사람이 서글서글한게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반대로 꾀하답니다.

철 근: 차분한편이겠지요.

❖ 너나들이하다—간격을 두지 않고 대하다.

눈치가 없다—제때에 간파하는 능력이 없다.

서글서글하다—성격이나 마음씨가 남성적인 느낌이 있게 너그

렵고 부드럽다.

꼼하다—말없이 속으로만 좁게 생각하는 성질이 있다.

차분하다—(성격이) 조용하고 가라앉다.

[입말체문장]

— 옛날 솜뽀 어데 갔어?(요, 습니까)

○ 세월이 있지 않아.(요, 습니까)

레1: — 하느라고 했는데 잘 안돼요.

○ 옛날 솜뽀 어데 갔어요?

◇상식◇

## 언어와 민족성

언어는 민족성을 교수하고 발전 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람은 그 어느 나라에서 살아도, 그 어떤 민족의 포위속에 있어도 민족어만 철저히 교수하면 자기의 민족성을 지켜낼수 있다.

1870년의 도이칠란드—프랑스전쟁 이후 도이칠란드에 귀속되었던

프랑스의 알사스 로렝지방의 한 프랑스어교원은 이런 교훈을 남기였다.

《비록 한 민족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령토전부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의 언어만 지키다면 마치 죄수가 자기 손에 열쇠를 쥐고있는것과 같다.》

레2: - 형님도 참, 그렇게도 달리지 못하겠어요?  
○ 세월이 있지 않니.

❖ 옛날 숨썬 어데 갔는가-그전엔 잘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세월이 있지 않는가-① 어떤 일을 해본지 오래되었다.

② 세월이 흘러 적지 않게 나이를 먹다.

◎ ...도 참.(매우 딱하거나 기막힌 심정을 나타낸다.)

ㄱ: 자, 과자다. 출출할 때 먹어라.

ㄴ: 어머니도 참, 제가 어린애줄 알아요?

## 안부를 물어보며

남 수: 요즘 일이 잘 돼?

금 혁: 잘되지 않구. 그런데 요샌 왜 꿈쩍 안해?

남 수: 어디 짬이 있어야지.

금 혁: 그건 또 무슨 남수답지 않은 소리야?

금 희: 시간이 없으니 없다고 하겠지요.

금 혁: 옆에선 뭘 안다고 그래?

금 희: 한마디 하기가 무섭구나.

남 수: 그러다가 의가 상하겠어. 내 시간을 내여 꼭 들리겠어.

❖ 요즘-최근.=요즈음.

꿈쩍 안하다-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②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지 앓구-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짬-시간적여유.

옆에선-《옆에서는》의 준말로써 제3자를 나타낸다.

...기가 무섭다-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뒤따라 다른 어떤 일이 생긴다는 뜻.

의가 상하다-관계가 나빠지다.

◎ 그건 무슨 ...답지 않은 소리인가?(어울리지 않는 말을 한다.)

ㄱ: 아무래도 사직해야 할것 같애.

ㄴ: 그건 무슨 영빈동무답지 않은 소리예요?

○ 말해봅시다

ㄱ: 이젠 더 못해먹겠어.

ㄴ:

[보충회화]

## 할 말이 없어.(요, 습니다)

광 수: 천천히 걸을수 없겠습니까?

영 민: 내 걸음이 빠릅니까?

광 수: 오늘따라 숨이 차서 따라갈수가 있어야지요.

영 민: 심장이 나쁜 모양입니다.

광 수: 심장보다 폐가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영 민: 혹시 담배를 많이 피우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끊는게 좋지요.

광 수: 할 말이 없습니다.

- ❖ 숨(이) 차다—숨을 쉬기가 힘들다.=숨이 가쁘다.  
오늘따라—여느때와 달리.  
끊다—(담배나 술 같은것을) 그만두다.  
할 말이 없다—변명할 여지가 없다.

### 유모아

## 남의 말을 파카하다가

한 부자가 하늘소를 팔러 시장에 끌고 갔다. 반나절이 지나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하늘소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사겠소. 이리 주오. 내가 팔아볼게.》 하고는 하늘소를 끌고 가며 《이 하늘소는 먹기도 잘하고 살도 찌고 건강하다고요. 젓통도 크고 새끼까지 가졌다고요. 석달만 있으면 새끼를 낳습니다. 사가는 사람은 횡재를 하지요!》 하고 말했

다. 과연 하늘소는 인차 팔렸다. 부자는 탄복하여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했다.

며칠이 지나 다른 사람이 찾아와 그의 딸을 중매서겠다고 했다. 그는 제법 아는체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딸은 참 좋수다. 먹기도 잘하고 살도 찌고 몸집이 우람한데다가 젓통도 크고 아이를 가졌어요. 석달만 있으면 아들을 낳지요. 테러가는 집에서야 횡재를 하지요!》



◎ 좀…르수 없겠습니까?

ㄱ: 좀 지나갈수 없겠습니까?

ㄴ: 지나가십시오.

[입말체문장]

— 그새 어떻게 지냈어?(요, 습니까)

○ 요 모양, 요 꼴이지.(요, 입니다)

례1: — 그새 어떻게 지냈어요?

◇상식◇

### 우스개소리는 생활의 윤희제

생활에서는 기분잡치는 일들이 있을수 있다. 오해, 언쟁, 좌절 등 이러저러한 생활의 매듭을 푸는데서 제일 좋은 윤희제는 우스개소리(유모아)이다. 특히 오늘 생활의 박동이 빨라지고 사업량도 많아지는 조건에서 우스개소리가 없으면 신경이 활출처럼 팽팽해질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

은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성을 내군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유모아적인것이 있으면 긴장한 기분이 사라지고 유쾌한 기분이 생기게 될것이다.

유모아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낸다. 생동한 우스개소리는 사람들이 배를 그러안고 한바탕 크게 웃게 하며 여운을 남긴다.

○ 그저 그럭저럭.

예2: - 아직도 여기서 일하십니까?

○ 요 모양, 요 꼴이지요.

❖ 그저- ① 특별한 목적이 없이.

② 그대로 그냥.

③ 그대로 아직.

그럭저럭-적당히.

요 모양, 요 꼴-(자신을 낮추어) 보는바와 같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웃음은 팽팽한 분위기를 없애고 신경의 긴장을 풀어놓을수 있게 한다. 웃음은 사람들사이에 마음이 통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유모아적인 성격을 가지는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리지적이고 유모아적인 사람은 걸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심리적모순을 안고있는 사람들보다 신경계통이 더 건강하다.

알맞춤한 유모아는 사업효률도

높여준다. 유모아적인 사람은 늘 즐거움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장수하게 된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심리치료에서 유모아치료법을 광범히 도입하고있다. 유모아치료법은 환자의 긴장감과 우려, 두려움, 비애 등 나쁜 정서를 없애고 정신적으로 즐겁게 하고 건전한 기분을 가지게 할수 있다.

## 길을 알려주면서

길 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평양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금 혁: 저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두 정류소 가서  
내리십시오.

길 손: 두 정류소란 말이지요.

금 혁: 예, 두 정류소.

내려서 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50m쯤 더 가면 6층  
건물이 보일겁니다.

길 손: 바쁘실텐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금 혁: 필요.

❖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쓰는 말.=말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어떤 경로를 통해.

쯤—정도.

…란 말인가—상대방의 말에 대한 확인.

바쁘다—시간이 긴박하거나 없다.

필요—다른 사람의 칭찬과 감사에 대한 친절한 부정.

◎ …은/는 두었다 뭘 하는가?(꼭 필요할 때 쓰지 않는다는 뜻.)

ㄱ: 철수야, 정류소가 어디 있니?

나: 눈은 두었다 뭘 해? 저기 있지 않니.

○ 말해봅시다

가: 이번 경기의 우승자가 누구요?

나:

[보충회화]

**말씀도중에 안됐습니다.**

손님: 말씀도중에 안됐습니다.

저, 사장되시는분이 지금 어데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알아두기◁

###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또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를 쓴다.

례: —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나 친근한 사이에서는 《고맙습니다》를 써야 한다.

례: — 남자의 주머니엔 급할 때 쓸 얼마간의 돈은 있어야 해.

○ 고마와요, 어머니. ○

감사해요, 어머니. ×

직 원: 리종만사장 말인가요?  
 손 님: 예, 리종만이라고 부르는것 같습니다.  
 직 원: 지금 그분은 현장에 계십니다.  
 손 님: 그렇습니까?  
 직 원: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손 님: 감사합니다.  
 직 원: 감사하기까지야 뭘.

◎ ...기까지야 뭘.=뭘요.  
 G: 탁구를 잘 치는데요.  
 L: 잘 치기까지야 뭘.

[입말체문장]

- 못한다지 않아.(요, 습니까)
- o 이견 또 무슨 변덕이야?(요, 입니까)

예1: - 우리 축구조를 좀 맡아주십시오.

- o 못한다지 않습니까?

예2: - 그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 o 이견 또 무슨 변덕이야? 어제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 변덕-마음이나 자연현상이 이랬다저랬다하며 변하기 잘하

는것.

◎ ...나다지 않는가?

ㄱ: 빨리 떠나라.

ㄴ: 못 떠난다지 않습니까?

◇상식◇

### 세계 여러 언어에서 《고맙다》의 뜻

《고맙다》는 자기에게 좋게 해 준데 대하여 흐뭇한 느낌을 가질 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서 그에 담겨진 뜻은 민족어마다 같지 않다.

한어(중국어)에서 고맙다는 말은 《씨에씨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갚겠다》는 뜻이며 일본어에서 고맙다는 말은 《아리가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잊기 어려운 일이다》는 뜻이다. 로씨야어에서 고맙다는 말은 《쓰빠씨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되다》는 뜻이다. 도이취어에서 고

맙다는 말은 《땅게》인데 이것은 《보답하겠다》는 뜻이며 프랑스어에서는 《매르씨》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신 갚겠다》는 뜻이다. 조선어에서 《고맙다》는 《존경을 느끼다》의 뜻이 담겨져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존경하는것을 《고마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자의 존경을 나타내는 《敬》자를 《고마 경》이라고 하였다. 《고마하다》는 단순히 《존경하다》는 뜻이고 《고맙다》는 그에 붙은 《ㅂ》에 의해 《존경을 느끼다》, 《존경스럽다》는 뜻을 나타낸다.

## 우물안의 개구리

동해바다가기슥에 《계수나무우물》이 있었다. 곁에 향기로운 계수나무 한그루가 높이 자라 하늘을 덮고있는 아름다운 우물이었다.

어느날 지나가던 갈매기 한마리가 계수나무에 앉아 킁킁한 우물안을 기웃기웃 들여다보는데 그속에서 개구리의 목소리가 짹짹 울려나왔다.

《목이 마른게지? 왜 거기 앉았니? 난 이 우물에서 사는 개구리 금와란다.》

《금와? 난 갈미라고 하는 갈매기란다.》

《갈미? 어디서 사는데?》

《바다에서 산단다.》

《바다는 어디야? 산이냐, 들이냐?》

갈매기는 웃음을 참고 짐짓 말을 받았다.

《바다란 물나라란다.》

《그 나라에는 물이 많은가부지?》

《많다마다.》

《아무렴, 이 우물만큼이야 많을라구.》

갈매기는 우스웠지만 또 참고 받아주었다.

《우물을 천만개 합친것보다 더 많지.》

개구리는 입을 비죽거렸다.

《회- 거짓말.》

개구리는 밧기 어렵다는듯 머리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바다는 대관절 얼마나 넓니? 우리 우물만큼 넓어?》

《넓다마다. 너보다 수천수만배나 큰 고래떼가 뛰노니 우물과는 대비도 안돼.》

《그럼 바다에 또 뭐가 더 있니?》

《태풍이 있구 파도가 있지. 바람이 바다를 뒤집어 산같은 파도가 치솟았다가 바위를 때리는데 그 장엄함이란 이루 다 말할수 없어.》

《피— 또 거짓말. 바람이 어떻게 물을 일으키구 물이 어떻게 바위를 때린다는거야. 우리 우물엔 그런 일이 한번도 없는데...》

갈매기는 어이없었다. 우물안의 개구리에게 동해의 장쾌한 광경을 아무리 말해줘야 바다를 보지 못했으니 통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엔 하늘을 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하늘은 보았겠지?》

《보구말구. 지금도 쳐다보구있지 않니?》

개구리는 하늘에 대해선 다 안다는듯 자신만만해했다.

갈매기가 물었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니?》

《돈일만 한 네모박이지.》

개구리가 사는 우물이 네모박이었던것이다.

갈매기와 개구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해가 저물어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갈매기가 다시 물었다.

《하늘에 뭐가 있지?》

《해도 있구 달도 있는데 지금은 별이 보여.》

《별이 모두 몇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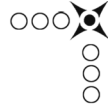
《다섯개야. 반짝이 둘, 어스름이 셋.》

《하늘에 별이 모두 다섯개란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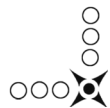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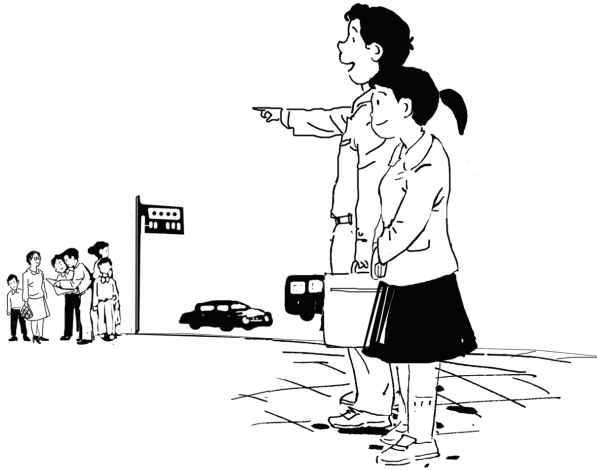
말해볼수록 어이없고 기가 막혔다. 하긴 우물안에서 하늘이 돈일만큼 보이고 별이 다섯개밖에 보일수 없지. ...

이로부터 바깥세상에 갇힌 사람을 풍자적으로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한다.





### 3. 정류소에서



## 버스줄에서

금 혁: 마침 버스가 와.

금 희: 그런데 버스줄에 사람들이 많구나 뭐.

금 혁: 혹시 알겠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있어.

광호동무!

광 호: 금혁동무요? 좀 늦었구만.

길 손: 이걸 또 뭐요? 줄을 서야지 끼워서면 됩니까?

금 혁: 미안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길 손: 바쁜거야 누구나 같지요.

금 희: 정말 안됐습니다.

❖ 마침—① 그때 바로.

② 어떤 기회에 알맞게.

혹시—① 만일에.

② 어찌하면.

③ 어찌다가 우연히.

이건 또 뭔가—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의 놀라운 감정을 나타내는 말.

끼워서다—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 속에 섞이거나 들어 서다.

◎ ...아야지/어야지/여야지 ...면 되는가?

ㄱ: (버스줄에 끼워서며) 미안합니다. 좀 같이 갑시다.

L: 줄을 서야지 끼워서면 됩니까?

○ 말해봅시다

G: 제편 끝문에 공을 차넣다니?

L:

[보충회화]

### 무슨 가을뻐꾸기같은 소리야?(요, 입니까)

철 호: 시간이 지났는데 영남이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

민 수: 또 문제풀이로 밤을 잤을거야.

광 철: 그건 무슨 소리야?

민 수: 철호한테 물어봐. 영남인 수학에선 귀신이야.

철 호: 그래, 수학귀신이야.

광 철: 우리 영남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

민 수: 무슨 가을뻐꾸기같은 소리야? 영화관에 가자구  
한건 어떡하구?

❖ 밤을 패다-밤을 새우며 어떤 일을 하다.

무슨 소리-남의 말을 부정할 때 쓰는 말.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하다-① 하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다.

② 정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다.

어떡하구-《어떻게 하고》의 준말.

◎ ...귀신.(어느 하나에만 정신을 쏟아보는 사람을 이르는 말.)

ㄱ: 또 운동장에 나갔어요?

ㄴ: 축구귀신이라는걸 몰라?

◎ …에선 귀신이다.(어느 한 분야에서 높은 실력을 가지고있다.)

ㄱ: 제 혼자힘으론 이 문제를 풀수 없어요. 좀 설명해줘요.

ㄴ: 철수한테 물어봐. 수학에선 귀신이야.

[입말체문장]

— 이 친구 끈은목이로구나.

○ 난 원래 그렇게 돼먹었어.(요, 습니다)

례1: — 한번쯤 지각할수도 있는거지.

○ 지각했다간 큰일이야.

— 이 친구 끈은목이로구나.

▷알아두기◁

## 《안》과 《못》

《안》과 《못》은 부사로서 모두 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안》은 의식적인 부정의 뜻을 나타내며 《못》은 어떤 요인으로 인한 부정의 뜻을 나타내므로 잘 가려써야 한다.

례: ○ 차를 몰지 않는다.(안 몬다)-운전법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몰지 않는다.

○ 차를 몰지 못한다.(못 몬다)-운전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몰지 못한다.

레2: - 왜 처녀한테 따듯한 말 한마디 안해줘?

○ 난 원래 그렇게 돼먹었어.

❖ 한번쯤-한번 정도.

곧은목-용통성이 없이 외곶으로만 나가거나 고집이 센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큰일이다-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되다.

돼먹다- ① 말과 행동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맞다.

② 관습적으로 굳어져있다.

◇상식◇

### 평양말의 우수성

평양말은 사람들의 레이범절과  
정신도덕적풍모, 다양한 정서와 미  
묘한 감정을 훌륭히 나타낼수 있  
는 민족어이다. 평양말은 문법구  
조가 치밀하게 짜이고 규범이 체  
계정연하게 서있으며 규범성과 문  
화성이 잘 갖추어진 본보기언어이  
다. 평양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  
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나  
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

킬수도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  
길수도 있다. 또한 평양말은 레이범  
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도덕교양에도 매우 좋다.  
평양말은 문화어의 무궁무진한 원  
천이고 언어의 주체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바탕이다. 평양말을 기준으  
로 함으로써 우리 문화어는 주체  
가 철저히 선 가장 높은 형태의 민  
족어로 발전할수 있게 되었다.

## 버스에 오르면서

- 금 혁: 자, 천천히 오릅시다. 아직 자리도 많은데.  
광 호: 먼저 오르십시오.  
금 희: 먼저 올라요, 내 뒤따라 오를게요.  
광 호: 여성들을 앞세우는거야 초보적인 레절이 아닙니까?  
금 희: 고마워요. 그럼 제 먼저...  
금 혁: 빨리 오르라구. 버스가 떠나겠네.  
광 호: 차표는 내가 냈어.  
금 혁: 오, 알겠어.

- ❖ 밀다—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게 그 방향으로 힘을 준다.  
아직—어떤 시간이 미처 되지 못하거나 어떤 정도에 채 이르지 못한것을 이르는 말.  
먼저—시간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복새판—복잡한 환경.  
뒤편—《무엇에》의 준말.  
차표를 내다—차표를 주거나 바치다.  
오—낮추는 말차림에서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 ◎ ...은/는 뒤편에 필요한가?  
기: 자, 받아. 얼마 안돼.

L: 이 돈이 뭇에 필요해요?

○ 말해봅시다

G: 책 몇권을 사야겠는데.

L:

[보충회화]

### 택시를 부를가?(요, 잡니까)

영 철: 택시를 부를가요?

민 수: 부를새가 있습니까? 잡아타는게 낫지요.

영 철: 마침 저기 택시가 옵니다.

좀 탑시다!

운전수: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민 수: 삼흥회사까지 갑시다.

영 철: 좀더 빨리 갈수 없겠습니까?

운전수: 10분이면 도착할겁니다.

영 철: 10분이 우리에게겐 하루맛잡이입니다.

❖ 택시를 부르다—택시가 이곳으로 오도록 찾다.

잡아타다—지나가던 차를 불러세워 타다.

◎ ...르새가 있는가?(매우 바쁘다.)

G: 이젠 책도 좀 보십시오.

L: 책을 볼새가 있습니까?

◎ ...가/이 나에게 ...맞잡이다.

ㄱ: 그분이야 삼촌이 아니나요?

ㄴ: 삼촌이 나에게 아버지맞잡이야.

[입말체문장]

— 속수무책으로 가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합니까)

○ 바글바글 끓지 말고 머리를 좀 식히라.(요, 십시오)

례1: — 우리가 애쓴다고 될 일입니까?

○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가만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유모아

### 독서가들의 경쟁

녀학생이 교수에게 요즘 제일 유행되고있는 책을 읽었는가고 물었다.  
교수는 읽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했다.

녀학생: 《아니, 그 책이 나온지 석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읽지 못했습니까?》

교수: 《처녀는 단편의 소설 〈신곡〉을 읽었소?》

녀학생: 《아니요. 읽지 못했습니다.》

교수: 《그럼 좀 서둘러야 하겠소. 그 책은 세상에 나온지 벌써 수백년이 되었소!》



예2: - 야, 이걸 어찌면 좋아?

○ 바글바글 끓지 말고 머리를 좀 식히세요.

- ❖ 속수무책-(손이 묶이운 상태에 있듯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것을 이르는 말.  
가만 앉아있다-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이걸 어찌면 좋은가-(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걱정스러워 하는 말.
- 바글바글 끓다-목적한바를 달성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다.
- 머리를 식히라-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말.

틀린 말-옳은 말	
샤워 .....	샤와
아나운서 .....	방송원
스웨터 .....	세타
시멘트 .....	세멘트
미디어 .....	매체
메시지 .....	메세지
마이너스 .....	미누스
핸드폰 .....	손전화
컵 .....	고뿌
바께쓰 .....	바께뜨
아파트 .....	아빠트
라디오 .....	라지오

## 량해를 구할 때

금 희: 야, 가슴이 조여죽겠네.

광 호: 나하고 자리를 바꿉시다.

금 혁: 미안하지만 좀 조여줄수 없겠습니까?

길 손: 어디 발을 옮겨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광 호: 녀동무가 불편해해서 그렇습니다.

길 손: 좀 조여줍시다. 여기 녀성동무도 있는데...

금 혁: 이젠 됐어?

금 희: 아이, 숨이 나가는것 같아요.

❖ 조이다—① 몸의 어떤 부분이 눌리워 아픔을 느낄 정도로 힘을 주다.

② 차지하는 자리나 공간이 좁아지게 들이밀다.

조이는척 하다—조이는 흉내를 내다.

숨이 나가다—① 숨을 쉬다.

② 근심걱정하던것이 없어져서 안심되다.

◎ 좀 ...아/어/여주라.(남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라.)

레: 좀 들어주십시오.

◎ ...아/어/여죽겠다.(몹시 하고싶다.)

레: 배고파죽겠어요.

◎ 어디 ...가/이 있습니까?(그 무엇이 없다.)

ㄱ: 시간을 좀 내어줄수 있습니까?

ㄴ: 어디 시간이 있습니까?

○ 말해봅시다

ㄱ: 소설책을 좀 빌려줄수 있습니까?

ㄴ:

[보충회화]

내릴 뻔 내리더라도 좀 앉으라.(요, 십시오)

광 철: 아주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녀 인: 전 괜찮아요.

▷알아두기◁

### 《꺼지라》의 의미

《꺼지다》라는 말은 《불이 꺼지다》와 같이 타던것이 중지된다는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꺼지다》는 말은 은유로 《죽다》로는 쓸수 있어도 《물러가라》, 《사라지라》는 의미로는 쓸수 없다.

때문에 《가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꺼지라》고 말할것이 아니라 《물러가라》 또는 《사라지라》고 말해야 한다.

예: ○ 여기서 썩 사라져. ○

○ 여기서 꺼져. ×

광 철: 그러지 마시고 어서 앉으십시오.

녀 인: 인차 내릴텐데요 뭐.

광 철: 내릴 땐 내리더라도 좀 앉으십시오.

녀 인: 고마워요.

광 철: 손잡은 인 주십시오.

녀 인: 다들 손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 괜찮다—① 아무 탈이 없이 무사하다.

② 걱정하거나 꺼릴 필요가 없다.

인 주십시오—《이리 주십시오.》를 달리 이르는 말.

◎ 인차 …르텐데요.(인차 …르것이다.)

ㄱ: 식사는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ㄴ: 음식이 인차 나올텐데요.

◎ …르 땐 …더라도 …좀 …으라.(요, 십시오)

ㄱ: 인차 가야 합니다.

ㄴ: 갈 땐 가더라도 좀 앉았다 가십시오.

[입말체문장]

— 뒤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ㅂ니까)

○ 까짓거, 그러겠으면 그러라지.(요)

례1: — 뒤에서 뭐라는지 알아?

○ 나에 대해 뒤소리를 하고있다는 말은 들었어.

례2: - 저만 잘났다고 즐렁거리지 말라는거야.

○ 까짓거, 그러겠으면 그러라지요.

- ❖ 뒤에서-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지-무엇이라고 하는지.  
뒤소리-본인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하는 시비질.  
잘났다-잘 생기다, 훌륭하다.  
 즐렁거리다-자기가 제일인듯 한 태도로 행동하다.  
까짓거-어떤 대상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서 끼움말로 쓰인다.

◇상식◇

### 《가슴》의 어원

《가슴》은 《가》와 《슴》의 두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파디이다. 《가》는 곁 또는 옆, 가까이, 주변의 뜻을 가지는 《물가》, 《길가》의 《가》와 같은 말이다. 《물가》는 강물옆, 강주변이라는 뜻을 가지며 《입가에 미소를 띠우다》의 《입가》는 입언저리의 뜻을 가진다. 《슴》의 본래형태는 《슴》으로서 심장을 나타냈는데 《가》와 결합하여 쓰이는 과정에 변화된것이다. 그러므로 《슴을 쉬다》는 본래 심장이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결국 《가슴》은 《심장의 옆》, 《심장가까이》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 실화

# 조국에 드리는 인사

《저기 선거장이 보여요!》

버스안에서 누군가가 터치는 탄성에 모두의 눈길이 차창밖으로 쏠렸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8호 보통강선거구 제7호 분구선거장의 정경이 점점 가까이 다가들수록 화선의 눈앞으로 지나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 \* \*

《이름처럼 곱게 피어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참된 조선녀성이 되어야 한다.》

일본땅에서 태어난 화선은 소꿉시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왜 부디 이런 말을 해주는것인지 까닭을 알수 없었다.

(난 그저 춤으로 성공하면 그만인걸 뭐.)

어느날 화선은 가족사진첩을 펼쳐보다가 춤을 추는 어머니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게 되었다. 우아한 춤가락이 금시 흘러나올것만 같은 사진속의 어머니를 보며 화선은 어머니에게 그때 춘 춤이 무슨 무용인가고 물었다.

《그게 바로 조선사람의 춤, 조선무용이란다.》

조용히, 그러면서 깊은 뜻을 담아 하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외워보는 화선에게는 너는 조선사람이다, 일본땅에서 살아도 조선사람의 자존심과 긍지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이르던 부모들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후 조선학교에 입학한 화선은 조선무용의 춤가락이 몸에 배일수록, 우리 말과 글을 익혀갈수록 자기가 다니는 조선학교가 또 하나의 정든

집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정든 집을 보살펴주는 더 큰 어머니 품이 있다는 것을 화선은 다는 알수가 없었다.

열살 잡히던 해에 화선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에 망라되어 조국에서 진행되는 설맞이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크고 화려한 무대, 열광적인 박수갈채, 조국땅 어디서나 반겨맞는 친절환 사람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

일본에서 들어온 공화국에 대한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총련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시절 또다시 설맞이공연참가를 위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화선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풍성한 생일상까지 받아안았다.

조국의 사랑을 못 잊어 외우는 딸애를 바라볼수록 어머니는 언제든 지 꼭 들려주려고 했던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이 사진들이 어머니가 총련금강산가극단 무용배우로 있을 때 조국을 방문하여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이란다.》

사진을 보며 깜짝 놀라는 화선에게 어머니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재일동포들의 소행을 그렇듯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자녀들의 장래까지 헤아려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목메어 말하였다.

(아, 고마우신 아버지장군님께 나의 춤을 보여드리고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구나.)

한갓 무용수로 명성떨치고싶었던 어릴적의 화선의 꿈과 희망은 이렇게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어머니조국에 대한 보답의 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후 어머니처럼 총련금강산가극단의 무용배우가 된 화선은 가극단 성원들과 함께 흑카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는 일본의 여러곳을 순회하며 공연활동을 벌리었다.

그러던 주체100(2011)년 12월 화선은 아버지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앞길이 영영 막혀버린것만 같았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다음해 조국을 방문하였던 화선은 또 한분의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리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인민들과 숨결도 뜻도 함께 하며 애국의 한길만을 가고자려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총련금강산가극단 배우들과 함께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쳤다.

그 신념, 그 마음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의 귀중한 한식술이라고 하시며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어린 축하문을 보내주시었다. 화선에게는 태양처럼 따사로운 그 품이 자기가, 재일동포모두가 안겨사는 조국의 품으로 안겨왔으며 사랑을 다해, 정을 다해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꼭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가슴에 차넘치는 감사의 그 정을 다소나마 터칠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주체103(2014)년 3월 9일 조국방문의 나날을 보내는 화선에게 온 것이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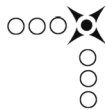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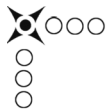
드디어 화선의 차례가 되었다. 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은 화선은 경건한 마음으로 선거표를 받아들었다.

선거표에 새겨진 공화국국장이 류달리 눈뿌리를 파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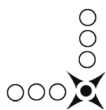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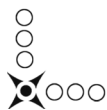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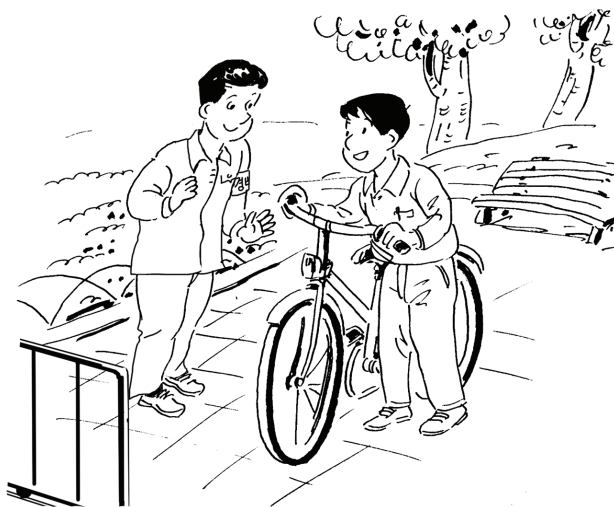
마치도 그것은 해외에 사는 동포들을 변함없이 사회주의대개정의 한식술로, 혈육으로 사랑해주는 어머니조국의 사려깊은 눈빛처럼 안겨왔다.

화선은 뚫어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며 찬성의 한표를 바치었다. 그것은 영원히 안겨살 고마운 삶의 품—어머니조국에 공화국의 한 평범한 해외공민이 드리는 감사의 인사이기도 하였다.





## 4. 직장에서



## 정문에서

- 금 혁: 밤새 안녕하셨어요?  
수 위: 금혁인가? 좀 늦었구만.  
금 혁: 안됐어요. 사장은 출근했어요?  
수 위: 출근하다마다.  
금 혁: 또 추궁듣게 됐구나.  
수 위: 별일없을거야.  
금 혁: 별일이야 무슨 별일이 있겠어요?  
수 위: 하지만 사장기분이 말이 아니야.

❖ 안됐다—미안하다.

추궁—잘못된 일에 대하여 엄격히 따지는것.

|| 추궁하다, 추궁받다.

별일없다—특별한 일이 없다.

좀—조금.

기분—그때그때의 감정.

하지만—그러나.

말이 아니다—매우 나쁘다.

◎ …다마다.(응당하다)=…지 앓구.

ㄱ: 이번에 최우등을 했어?

ㄴ: 하다마다.=하지 앓구.

○ 말해봅시다

ㄱ: 식사는 했니?

ㄴ:

[보충회화]

일찍 나오셨습니다.

수 위: 일찍 나오셨구만요.

사 장: 밤새 수고 많았습니다.

수 위: 수고할게 있나요? 제 본분인걸요.

사 장: 아직 출근한 사람이 없습니까?

수 위: 이제 막 들이닥칠 겁니다.

사 장: 그러니 제가 맨 처음이겠습니다.

수 위: 그러문요.

▷알아두기◁

### 《수고하십시오》와 《수고하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수고하십니다.》는 만났을 때의 인사말로, 《수고하십시오.》는 헤어질 때의 인사말로 쓴다. 그러나 아래사람들이 웃사람들을 만날 때에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면 안된다. 더우기 《수고하십시오.》는 《고생하라》의 느낌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말투를 바꾸어 《수고하시겠습니까.》 또는 《수고 많겠습니까.》라고 하여야 한다.

매일 일찍 출근하느라고 수고 많겠습니다.

사 장: 그래서 사장이 아닙니까?

[입말체문장]

- 거 무슨 사람타발이야?(야요, 입니까)
-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않아.(아요, 습니까)

례1: -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야 어디...

○ 거 무슨 사람타발이에요?

례2: - 일손이 많은데 아직도 못 끝냈습니까?

○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않습니까?

- ❖ 거-《그것》의 준말로써 굳더더기처럼 말을 갑자를 때 쓴다.  
타발-무엇에 대하여 맞가지 않게 여기면서 투덜거리는것. ||사  
람타발, 조건타발. ||타발을 늘어놓다, 타발을 하다.  
일손-일을 하는 로력. ||일손이 모자라다, 일손이 딸리다,  
일손이 남다, 일손이 많다.  
손발이 맞다-일을 하는데서 서로 마음과 동작이 맞다.  
해먹다-① (무엇을) 만들어서 먹다. ||국수를 해먹다.  
② 일을 하다.  
③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먹고살다.  
||농사를 해먹다.

◎ ...야/이야 어디.

① 감히 할 생각을 못하겠다는 뜻.

ㄱ: 이번 학기시험에선 최우등을 할수 있겠지?

ㄴ: 우등이라면 몰라도 최우등이야 어디.

② 충분한것이 못되는것 같다는 뜻.

ㄱ: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ㄴ: 교것(그것) 가지교야 어디...

### ◇상식◇

##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글자

우리의 고유한 민족글자의 우수성에 대하여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도서 《알파베트》의 저자 존 맨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언어학자 라이샤워교수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글자는 조선글자이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2년말까지 유네스코가 지구상에 있는 2900여종의 언어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사업을 진행한 결과 조선문자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구상에 있는 문자들 가운데서 그 창제와 문자, 제정원리 그리고 리념이 정리되어있는 문자로 조선글자가 첫번째로 뽑혔다.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로 조선글자가 평가받았다.

특히 언어학연구에서 이른바 《세계최고》라고 자처하는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이 문자의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결과 조선글자가 1등으로 평가됨으로써 우리 나라 글자는 세계적으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담화할 때

사 장: 왜 찾았는지 짐작이 가겠지?

금 혁: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

사 장: 동문 지각을 밥먹듯 하누만.

금 혁: 잘못했습니다.

사 장: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다요?

금 혁: 꼭 고치겠습니다.

사 장: 내 다시 강조하는데 출근시간은 8시요.

금 혁: 명심하겠습니다.

❖ 짐작—(사정이나 형편 등을) 감각적으로 헤아리는것. || 짐작을 하다, 짐작이 가다.

◎ ...아서/어서/여서 죄송하다.

레: 시간을 지체시켜 죄송합니다.

◎ ...면 단가?(그것만으로는 안된다.)

레: 충고를 줬으면 답니까? 도와도 줘야지요.

◎ ...를/을 밥먹듯 하다.(자주 그런 일을 하던가 또는 당하다.)

ㄱ: 선생님한테 욕을 먹었어?

ㄴ: 요즘은 욕을 밥먹듯 해.

○ 말해봅시다

ㄱ: 궁금한테 과자나 먹자.

ㄴ:

[보충회화]

## 들어갈만 합니까?

애 순: 들어갈만 합니까?

직 원: 들어오십시오.

애 순: 바쁘실텐데 찾아와서 안됐습니다.

직 원: 누구신지요?

애 순: 회계과에서 일을 보는 정애순입니다.

### 유모아

## 《아들》이 된 《남편》

프랑스의 녀류작가인 조르쥬  
쌍드(1804-1876)가 잔잔한 호수에  
서 혼자 배를 타면서 유람하고있  
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와 조르쥬는 노를 저어 배를 기슭  
에 대었다. 그런데 이때 웬 사나이  
가 승낙도 없이 그의 배에 뛰어오  
르는것이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

배에 타는거예요?》

그 사나이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배심 좋게 내뱉었다.

《내가 당신의 배를 탔으니 당  
신은 내 안해란 말이요.》

조르쥬 쌍드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으며 대답했다.

《남편? 천만에, 당신은 내 배안  
에 있으니 내 아들인셈이지요.》

직 원: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 했더니 동무였군요.

애 순: 절 아십니까?

직 원: 알다마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애 순: 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 알다마다—물론 안다.

◎ …근만 한가?(…근수 있는가)

ㄱ: 그 사람에게 말겁시다.

ㄴ: 해낼만 합니까?

◎ 바쁘실텐데 …아서/어서/여서 안됐습니다.

례: 바쁘실텐데 이런 부탁을 해서 안됐습니다.

[입말체문장]

— 나를 외판데 보내지 말아달라.(요, 주십시오)

○ 그럼 여기에 놀러왔을 작정이야?(요, 입니까)

례1: — 다른데 가서 일할 생각은 없어?

○ 나를 외판데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례2: —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겠어.

○ 그럼 여기에 놀러왔을 작정이야?

❖ 외판데—따로 떨어져있는 곳.

보내다—지내다.



눌러앉다—① 앉아있던 그 자리에 계속 있다.

② 말아하던 직무나 직책에 그대로 있다.

◎ …르/을…작정인가?(반드시 …르 생각인가?)

ㄱ: 여기에 그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ㄴ: 다른데로 갈 작정입니까?

◇상식◇

### 《코레아》의 유래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왜 《코레아》로 부르는것일까?

이것은 이탈리아의 여행가이며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1254-1324)가 쓴 《동방견문록》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마르코 폴로는 1271년 원나라의 왕궁에서 벼슬을 하면서 오늘의 중국과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돌아다니였다고 한다. 그후 베니스에 돌아가서 1299년의 베니스-제노아전쟁에 참가하였다

가 포로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옥중에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조선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 책에 의하여 유럽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지식과 함께 아시아에 《고려》라는 발전된 강국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유럽사람들은 이때부터 우리 나라를 가리켜 《고려》라고 불렀는데 악센트가 강해지면서 《코레아》로 되었다.

## 일터에서

광 호: 아까부터 출창 무슨 생각을 하고있어?

금 혁: 생각은 무슨 생각. 아무 일도 없어.

광 호: 이마에 다 찍여져있는데두.

금 혁: 찍여지긴 뭘 찍여져있다는거야?

광 호: 락심천만해하는거.

금 혁: 사람을 못 속이겠구만.

광 호: 사장이 찾아서 갔댔다지?

금 혁: 된육을 먹었어.

광 호: 육도 할줄 모른다면야 사장이 아니지.

❖ 출창-계속.

이마-머리와 눈섭사이.

락심천만해하다-매우 락심하다.

된육을 먹다-몹시 심한 욕설을 듣다.

◎ ...근줄 모른다면야 ...가/이 아니다.

례: 인사도 할줄 모른다면야 사람이 아니지.

◎ 아까부터 출창 무슨 ...를/을 하고있는가?

ㄱ: 아까부터 출창 무슨 글을 쓰고있어요?

ㄴ: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있어요.

○ 말해봅시다

ㄱ:

ㄴ: 우리 소설을 읽고있어.

[보충회화]

**옆어진김에 쉬어간다고 잠깐 쉬자.(요, ㅂ시다)**

영 남: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철 수: 기계가 말뚝을 부러서 이러지 않습니까?

영 남: 잘 나가던 기계가 무슨 말뚝이라는겁니까?

철 수: 오동작을 하고있습니다.

영 남: 거참, 야단났군.

철 수: 그래서 기사를 불렀습니다. 대책이 서겠지요.

영 남: 옆어진김에 쉬어간다고 잠깐 쉽시다.

▷알아 두기◁

### 《귀엽다》와 《깜찍하다》

《귀엽다》는 말은 《사람이나 동물(활동체)이 사랑스럽게 곱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활동체에 대해서는 쓸수 없다.

《깜찍하다》는 활동체나 비활동체에 관계없이 다 쓸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귀엽다》는 뜻으로뿐아니라 《교활하다》는 뜻으로도 쓸수 있으므로 대상과 정황에 맞게 잘 가려 써야 한다.

❖ 오동작—규정의 요구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것.

야단나다—곤란하거나 딱한 일이 생기다.

부르다—① 오라고 하다.

② 만나자고 찾다.

◎ 말썽을 부리다

① 기계제품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다.

② 사람이 결함으로 되는 행동을 하다. ||말썽군, 말썽꾸러기.

례: 애가 말썽을 부려서 이리저리 않아요?

◎ 잘 나가다

① 어떤 일이 잘되어가다.

례: 일이 척척 잘 나가는데.

② 말이나 행동을 잘 맞추어주다.

ㄱ: 이젠 더 못 도와주겠어.

ㄴ: 잘 나가다 왜 이러십니까?

[입말체문장]

— 일이 손에 붙지 않는 모양이군.(요, 비니다)

○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비니다)

례1: — 이거 도무지 집중이 안되누만.

○ 일이 손에 붙지 않는 모양이군요.

례2: - 해낼수 있겠어요?

○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 도무지-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일이 손에 붙지 않다-일할 생각이 나지 않다.

두말하면-반복하여 말하면.

잔소리-(세세한 말이라는 뜻으로) 필요이상으로 하는 잡말.

◇상식◇

### 《 신 지 글 자 》

신지글자는 단군시기부터 고조선에서 쓰여온 최초의 민족고유의 글자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신지글자는 단군의 신하인 신지(벼슬이름)가 글자를 만들데 대한 단군의 령을 받고 만든것이라고 한다.

옛 역사책들에는 신지글자가 단군시기부터 고조선에서 쓰인 글

자라고 한결같이 쓰여있다. 《녕변지》에는 신지글자 16자가 들어있고 고조선시기의 무덤들에서 나온 칠그릇들에도 《녕변지》의 신지글자와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쓰여있는것을 볼수 있다. 신지글자는 음절글자(파디글자)로서 글줄은 내리썼는데 그 수는 약 80자였다고 한다.

## 동명왕릉과 농부

어느날 한 농부가 동명왕릉가까이에서 밭감을 매고있었다.

한낮이 되어올무렵 밭을 탄 량반이 앞뒤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왕릉 앞을 지나고있었다. 이것을 본 농부는 대뜸 일손을 멈추고 량반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하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농부는 량반의 코앞에까지 다가가서 우뚝 멈추어섰다.

량반은 기가 막혀 입을 벌린채 한동안 말을 못했다. 천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량반이 지나갈 때 길옆에 물러나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고있어야 하는것이 이때의 법이었다. 이 법을 어겼다가는 맞아죽어도 하소연할데가 없었다. 그런데 농부가 일하던 차림새로 량반의 행차를 가로막아나섰던것이다.

《야, 저놈을 당장 붙들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농부를 량반앞으로 끌어왔다.

《네놈은 어째서 레의범절도 모르느냐?》

《가만, 내가 레의범절도 모른다고 칩시다. 그레 량반님은 레의범절을 지켰소?》

《뭘, 뭘? 야 이놈아, 네가 감히 량반한테 레절을 물어?》

《그럼 밭을 타고 시조왕릉앞을 지나가는것이 량반의 레절이란 말이요?》

《뭘, 시조왕릉?》

량반은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묘가 바로 시조왕의 묘인 동명왕릉이요. 벌레나 개미만도 못한 주제에 무슨 레절을 말하자는거요?》

《히, 이놈 보라. 한다는 소리가… 이젠 벌레나 개미만두 못하다구? 이런 고약한 놈 봤나.》

량반은 소리치면서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서 농부를 당장 요정낼듯이 달려들었다.

《이놈, 다시 말해봐라. 어찌구 어째?》

《량반의 레절이 벌레나 개미보다 나은게 무엇이요? 그래도 벌레나 개미들은 이 왕릉이 우리 나라의 시조왕릉이라고 감히 기여들지 못하는데 량반님은 말까지 타고 왕릉앞을 지나가니 벌레나 개미보다 나은게 뭐요? 땅속에 계시는 시조왕께서 노하시겠소.》

《…?》

량반은 기가 꺾이고 말문이 막혔으나 천한 농부한테 당한 모욕만은 참아낼수 없었다. 당장 농부에게 벌을 주어 혼내주고싶었으나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동안 궁식거리던 량반은 농부의 눈길을 피해 동명왕릉을 올려다 보았다. 왕릉우에는 금잔디가 한벌 덮여있었고 왕릉주위에는 아름답디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었다.

(큰 나무엔 개미가 오르내리고 풀숲엔 벌레가 있기마련인데 여기라고 왜 개미나 벌레가 없을텐가.)

이렇게 생각한 량반은 제법 위세를 돋구며 소리쳤다.

《이놈아, 저 풀밭과 솔밭에 벌레나 개미가 정녕 한마리도 없단 말이 지. 내 이제 저곳에서 한마리만 잡아도 너는 량반을 놀린 죄로 죽음을 당할줄 알라!》

농부는 도리어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좋수다. 하지만 한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는 어찌하겠소?》

《그때에는 네 말대로 이 량반이 벌레나 개미만도 못하다고 하자.》

량반은 곧 하인들에게 왕릉주변에서 벌레나 개미를 한줌씩 잡아오라고 호령했다.

하인들은 한참동안이나 왕릉주변을 훑었으나 벌레 한마리 잡지 못했다.

《이 시라소니(<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같은것들! 산판에서 벌레나 개미 한마리도 못 잡는단 말이나?》

약이 오를대로 오른 량반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숲속을 직접 헤쳐나갔다. 그러나 단 한마리의 벌레나 개미도 잡지 못하고 비지땀(몹시 힘든 일을 할 때 흘리는 땀)만 실컷 흘렸다.

《아,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지치고지친 량반은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신기하긴 뭐가 신기하겠소. 그 미련한 벌레나 개미들도 동명왕릉을 알아보고 감히 기여들지 않기때문이지.》

량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 하인들이 말을 끌고 그뒤를 허둥지둥 따라가는 꼴이 참으로 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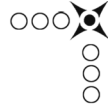
이 소문이 퍼지자 동명왕릉에 찾아오는 량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나라에서 관리까지 임명하여 왕릉을 돌보게 하였다.

오늘도 동명왕릉주변에는 벌레와 개미들이 잘 끼지 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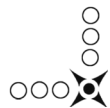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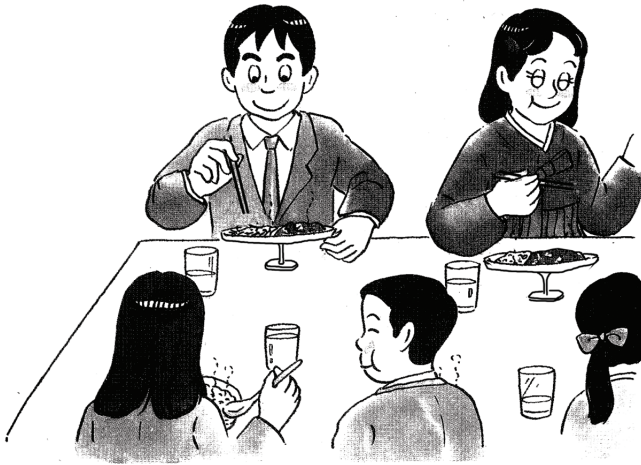
그것은 동명왕릉을 옮겨올 때 평양사람들이 주변의 흙을 파내고 깨끗한 흙을 가져다가 시루에 찌서 펴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로부터 천수백년이 지난 지금 동명왕릉주변은 공원처럼 알뜰히 꾸러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왕릉을 찾아오고있다.





# 5. 식당에서



## 식당을 찾아서

금 혁: 이런, 벌써 12시 반이야?! 이래노니 배가 고플수밖에.

정 심: 아침을 설치고 나왔으니 그럴수밖에요.

금 혁: 이 주변에 식당이 있겠지?

정 심: 있는것 같애요.

금 혁: 음식을 잘해?

정 심: 먹어봤어야 알지요.

금 혁: 다른 식당은 없어?

정 심: 식당타발하는걸 보니 아직 덜 시장한가부지요?

❖ 12시 반-12시 30분.

아침을 설치다-아침밥을 충분히 먹지 못하다.

타발-① 그 무엇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는것.

② 그 무엇에 대하여 맞갖지 않게 여기면서 투덜  
거리는것.

시장하다-배가 고프다는것을 점잖게 이르는 말.

덜 시장하다-배고픈 정도가 약하다.

◎ 이래노니 ...르수밖에.(=이러니까 ...르수밖에 없다.)

ㄱ: 오늘은 일찌기 잠자리를 펴야지.

ㄴ: 이래노니 몸이 날수밖에.

○ 말해봅시다

ㄱ: 밤늦게까지 오락을 하는 바람에 잠을 못 잤어.

ㄴ:

[보충회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디 가 한잔 하자.(요. ㅅ시다)**

명 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디 가 한잔 하자구.

인 수: 아닌게아니라 켄켄하구만. 헌데 난 지금 빈털터리야.

명 철: 부자집 도련님이 오늘은 어떻게 된거야?

인 수: 글썄 주머니가 텅 비엿다니까.

▷알아두기◁

### 《오랜만》과 《오래간만》

일부 사람들은 《오랜만》이란 말을 쓰고있는데 이것은 규범에 맞는 말이 아니다.

규범에 맞는 말은 《오래간만》이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을 때로부터 다시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이 오래된것》의 뜻을 나타낸다.

례1: 오래간만입니다.

례2: 오래간만에 조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명 철: 그러길래 내가 한턱 내겠다고 하지 않아요?

인 수: 어느 식당엘 갈까요?

명 철: 단골집에 가야지.

인 수: 여기에 단골집까지 두고있어?!

명 철: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래?

❖ 빈털터리—돈이나 재물이 없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텅 비다—완전히 비어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도련님—옛날에 양반, 귀족층 또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을 이르던 말.

그러길래—그러기때문에.

단골집—늘 정해두고 다니거나 거래하는 집.

[입말체문장]

—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습니까)

○ 개코망신을 했어.(요, 습니다)

레1: — 오래 기다렸겠구나.

○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레2: —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 개코망신을 했습니다. 글썸 4대0으로 졌다니깐요.

❖ 갔던 일-가서 한 일.

오래-시간이 매우 길게.

개코망신을 하다-사람들앞에서 머리를 쳐들 형편이 못되게  
큰 망신을 당하다.

◇상식◇

### 입말과 입말체

- 입말

말에는 입말과 글말이 있다.

글말은 글자로 나타내고 그것을 눈으로 읽게 된 말이다. 그러므로 글로 된것은 모두 글말이라고 한다.

입말은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게 된 말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는것, 글을 낭독하는것, 방송하는것 등은 다 입말에 속한다.

입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입말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대화식입말과 이야기식입말이다.

대화식입말이란 두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말한다.

이야기식입말이란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혼자 이야기식으로 하는 말을 말한다.

대화식입말과 이야기식입말에서는 몸짓, 손짓, 표정, 억양 등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보충할수 있다.

- 입말체

입말체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입말에 어울리는 말을 말한다.

대화에서 쓰이는 말이 입말체에 속한다. 그리고 이야기식입말에 쓰이는 말과 글로 써놓은 소설이나 희곡, 영화문학에서 등장인물들의 말 등도 입말체에 속한다.

## 식사를 주문하면서

- 금 혁: 이 식당에선 무슨 음식을 전문해?  
정 심: 차림표는 두었다 국 끓여먹겠어요?  
접대원: 손님, 손님은 무슨 음식을 청하겠어요?  
금 혁: 우선 맥주 한병에 잔 두개를 주십시오.  
접대원: 주식은 뭘 하시겠습니까?  
금 혁: 탕면을 주십시오.  
접대원: 뭐라고요?  
정 심: 국수말이에요.  
접대원: 난 또.

❖ 차림표—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이름을 적어놓은 표.=식사안내표,  
메뉴.

청하다—요구하다, 부탁하다.

◎ … 은/는 두었다 국 끓여먹겠는가?(필요한 때 사용하지 않는다.)

ㄱ: 나들이옷이 없어 못 나가겠어.

ㄴ: 잠바는 두었다 국 끓여먹겠어?

○ 말해봅시다

ㄱ: 어디 볼 책이 있어야지.

ㄴ:

[보충회화]

우리한테 역시 된장국이 맞는다니까.(요, 지 않습니까)

순 희: 간이 맞아요? 좀 싱거운것 같구만요.

옥 주: 동무는 너무 짜게 먹는게 탈이예요.

순 희: 된장국이 참 구수한데요.

옥 주: 우리한테 역시 된장국이 맞는다니까요.

순 희: 이 물고기튀기를 잡춰보세요. 정말 고소해요.

옥 주: 난 물고기튀기라면 족을 못 써요.

순 희: 물고기긴 나도 좋아하지만 청어만은 물렸어요.

❖ 구수하다-된장, 피  
등의 맛이나 냄새와 같이 은근히 좋다.

고소하다-참기름, 락화생의 맛이나 냄새와 같이 좋다.

물리다-자주 먹어서 더는 먹기 싫어지다.

▷조선어성구 몇가지◁

- ① 시작은 요란한데 끝은 보잘것 없음을 나타낼 때  
룽두사미(룽대가리에 뱀의 꼬리)
- ②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을 때  
소귀에 경읽기
- ③ 양쪽이 다 비슷함을 나타낼 때  
도토리 키대보기
- ④ 움짱달짝 못하고 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때  
독안에 든 쥐

- ◎ …는게 탈이다.(…는것이 결함이다.)
  - ㄱ: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 ㄴ: 다 좋은데 말이 좀 많은게 탈입니다.
- ◎ …라면 쪽을 못 쓴다.(몹시 좋아한다.)
  - ㄱ: 저 동문 책방에서 나올줄 모르누만.
  - ㄴ: 책이라면 쪽을 못 씁니다.

[입말체문장]

- 또 병나발을 붙어댔구만.(요)
- 술이란 입에 대지도 앓아.(요, 습니다)

유모아

키맛좋은 인사말

어느 한 러관의 관리원은 남을  
추어주기를 좋아하였다.

어느날 그의 집으로 많은  
손님들이 연방 찾아왔다.

그는 대문가에 나와 반갑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하나하나 맞이  
하였다.

그는 때 사람에게 똑같은 말  
로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

습니까?》

첫 손님은 《승용차를 타고 왔  
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즉시 감탄어린 어조로 《정말 귀  
인이시군요.》라고 말하였다.

두번째 손님은 그 말을 듣고 룡  
조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  
니다.》 하고 말하였다. 《정말 고

상하시군요.》 그가 또 손님을

추어주었다.



레1: — 안됐습니다. 친구와 한잔한다는게 그만…

○ 또 병나발을 붙어댔구만.

레2: — 혹시 술을 마시고 나오지 않았어요?

○ 술이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 안됐습니다—미안합니다.

한잔하다—얼마간의 술을 마시다.

병나발을 붙어대다—병을 나팔처럼 거꾸로 입에 대고 병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들이키다.

입에 대지 않는다—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세번째 손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나는 로케트를 타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엄지  
손가락을 내밀면서 《참으로 용감  
하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번째 손님은 《나는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곧 《정말 소박하십니다.》  
하고 대꾸하였다.

다섯번째 손님은 얼굴을 붉히면  
서 《나는 걸어왔습니다.》 하고 대  
답하였다. 그는 두손을 맞잡고  
《정말 장수하시겠습니다. 걷는

것은 몸에 아주 좋지요.》 하고  
말하였다.

여섯번째 손님은 주인이 어찌  
나 보려고 《나는 기어서 왔습니  
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웃으면  
서 《정말 섬세하십니다.》 하고 말  
하였다.

일곱번째 손님은 《나는 굴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조금도 얼굴색을 달리하지 않고  
《정말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하  
고 말하였다.

## 식당을 나서면서

접대원: 국수맛이 어떻습니까?

금 혁: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정 심: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접대원: 더 요구하실게 없습니까?

정 심: 뭘 더 하겠어요?

금 혁: 덧국수에 곱배기까지 했는데 더 채울 배가  
있어야지.

정 심: 잘 먹었어요.

금 혁: 잘 먹고 갑니다.

접대원: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 ❖ 육수-국수를 말아먹을수 있게 고기불이를 삶아낸 물.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속담)-매우 맛있다.  
배불리-배가 부르게, 더 먹을수 없을 정도로.  
덧국수-따로 덧놓아주는 사리국수.  
곱배기-한번 먹은 량만큼 또 먹는것.  
채울 배가 없다-더 먹을수 없다.
- ◎ 잘 ...고 간다.=잘 ...다 간다.(인사말)  
ㄱ: 왜 벌써 일어나? 좀더 앉았다 가지.  
ㄴ: 잘 놀고 가.=잘 놀다 가.

○ 말해봅시다

ㄱ: 이야기를 더 듣고 가지.

ㄴ:

[보충회화]

물을 마시다(가) 개켜서 그래.(요, ㅂ니다)

철 근: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영 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마시다가 개켜서 그렇습니다.

철 근: 물이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 마시고 체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까?

영 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철 근: 알면서도 그렇게 꼴걱꼴걱 마셨단 말입니까?

영 만: 버릇이 돼놔서.

철 근: 물에 체했을 때는 고철 방도가 없답니다.

영 만: 없긴 왜 없겠습니까? 술을 덥혀 마시면 속 내려간답니다.

❖ 개끼다—(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듯이 연거퍼 기침을 하다.

체하다—갑자기 먹거나 많이 먹어 배가 몹시 아파지다.=언치다.

꼴걱꼴걱—액체나 음식물이 목이나 좁은 구멍으로 단번에 물리여 잇달아 자꾸 넘어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입말체문장]

-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하지 않습니까)
- o 똑 부러진 수가 있으면 내놓으라.(요, 십시오)

례1: - 그 녀자가 계속 꼬리를 치니 어찌는 수가 있습니까?

o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례2: - 허술하게 대하면 안돼. 경을 칠려구?

o 똑 부러진 수가 있으면 내놓으라.

❖ 꼬리를 치다-녀자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교를 부리며 다가들다.

어찌는 수-해결할 방도.

허술하게 대하다-대수롭지 않게 대하다.

▷알아두기◁

### 《어서 오세요》와 《또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어서 오세요)》는 손님을 맞을 때 하는 인사말이고 《또 오십시오(또 오세요)》는 바래줄 때 하는 인사말로써 오랜 기간 굳어져 쓰여왔다. 지금 일부 사람들 특히 판매원이나 접대원과 같이 봉사분야의 사람들은 찾아온 손님을 맞고 보낼 때 《오세요》, 《가세요》라고 하는데 이 말법은 우리 민족의 언어례절에도 맞지 않는 틀린 말법이다. 그러므로 손님을 맞고 보낼 때는 《오세요》, 《가세요》라고 할것이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어서 오세요)》, 《또 오십시오(또 오세요)》라고 말해야 한다.

경을 치다—아주 혼날 정도의 꾸지람이나 나무람 또는 벌을 받다.

똑 부러진 수—단번에 해결할수 있는 방도.

## 옛이야기

### 원숭이와 모자장사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모자장사군이 모자를 가득 넣은 구력을 지고 장마당으로 가고있었다.

하늘에서는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있었다.

짐은 그리 무겁지 않은데 모자장사군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너무 더워 땀을 들일 곳을 찾던 장사군은 길가에서 커다란 그늘을 짓고 서있는 느티나무 한그루를 보았다.

《에라, 좀 쉬고 가자.》

장사군은 모자구력을 놓고 나무그늘에 앉았다.

시원한 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기분 좋게 식혀주었다.

《에이, 시원하다.》

땀을 들이던 장사군은 그만 소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뜬 장사군은 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구력안에 있던 모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말끔히 없어졌던것이다.

(이상두 하지? ...)

장사군은 주위를 두루 살피다가 나무우를 쳐다보았다.

나무우를 올려다보던 장사군은 놀라운 광경에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다. 글썄 원숭이새끼들이 모자를 하나씩 쓰고 느티나무우에 올라가 앉아있었던것이였다.

《모자를 이리 내놔!》

장사군은 고향을 쳤다.

원숭이새끼들은 저마끔 짹짹, 짹짹하였다. 그리고는 눈이 말뚱하여 장사군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이거 참, 야단났군.)

장사군은 너무도 억이 막혀 땅바닥에 펄쩍 주저앉았다.

그러자 원숭이새끼들도 모두 나무가지우에 팔씩팔씩 주저앉았다.

이때 장사군의 머리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장사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원숭이새끼들도 나무가지우에서 팔뚝팔뚝 일어섰다.

《모자를 못 내놓겠니?》

장사군은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굴렀다.

원숭이새끼들도 짹짹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다.

이번에는 장사군이 모자를 벗자 원숭이새끼들도 모자를 벗었다.

장사군은 모자를 자기 발밑에 획- 내던졌다.

그러자 원숭이새끼들도 모두 모자를 아래로 던졌다.

모자들이 장사군의 발밑에 몽땅 쏟아져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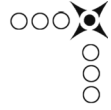
장사군은 떨어진 모자들을 집어 구렁에 넣고 자기 모자는 머리에 척 썼다. 그리고는 모자구렁을 지고 휘파람을 휘휘 불면서 장마당으로 갔다.

### ◇ 상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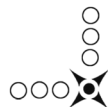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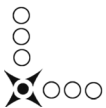
## 《삼익우》와 《삼손우》

《삼익우》는 사귀어서 도움이 되는 세가지 류형의 벗이라는 뜻이다. 다시말하여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은 《삼익우》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어도 좋다는 것이다.

《삼손우》는 사귀면 손해를 보게 되는 세가지 류형의 벗이라는 뜻이다. 즉 편벽한 사람, 착하기는 하나 주대가 없는 사람, 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6. 공원에서



## 공원을 찾아서

- 금 혁: 좀 거닐지 않겠어?  
정 심: 대낮에 거닐긴 어딜 거닐어요?  
금 혁: 왜? 사람들이 볼가봐? 보면 뭘 해? 난 꿈만한데.  
정 신: 그래두...  
금 혁: 그럼 어디 가서 좀 앉지.  
        참, 유보도에 나가는데 어때?  
정 심: 유보도라구 사람이 없겠어요?  
금 혁: 그럼 공원에 가자구.  
정 심: 좋아요.

❖ 거닐다—가까운 거리를 천천히 걸어서 왔다갔다하다.

대낮—한낮 또는 해가 밝게 비치는 낮.

꿈만하다—아무런 생각이 없다.

◎ ...겠으면 ...라지/으라지.(상관없다)

ㄱ: 김동무가 여길 뜨겠답니다.

ㄴ: 뜨겠으면 프라지.

○ 말해봅시다

ㄱ: 시간이 바빠서 먼저 가겠대.

ㄴ:



[보충회화]

바쁘신 모양이구만.(요, 입니다)

철 근: 또 만났군요.

영 수: 바쁘신 모양입니다.

철 근: 제 일이란 늘 이렇지요.

영 수: 전화로 해도 되겠는데 그러합니다.

철 근: 문건이야 전화로 전하지 못하지요.

영 수: 아 참, 내 정신 보지.

철 근: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알아두기◁

### 《부락드리다》와 《부락하다》

- 잘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께를 끼치게 되겠습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은 남에게 끼치는 께(신세, 괴로움)와 관련되므로 《드리다》와 어울리지 않고 《하다》와 결합하여 쓰인다.

더우기 《잘》과는 절대로 결합하여 쓸수 없다.

- 례: ○ 선생님, 우리 애를 부탁드립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영 수: 어서 그러십시오.

철 근: 후에 한번 만나 얘기를 나눕시다.

[입말체문장]

- 넙적넙적 받아들었다가 어찌자고 그래?(요, 럽니까)
- 다 제 생각이 있겠지.(요)

례1: -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 넙적넙적 받아들었다가 어찌자고 그러니까?

례2: - 이젠 나이도 적지 않게 먹었는데 왜 아직 장가

◇상식◇

### 《결초보은》의 유래

옛날에 어떤 장수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조희라는 애첩이 있었다. 장수는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전장으로 나가면서 본처의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면 조희를 재가시키라고 말했다. 그런데 장수는 정작 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림종에

이르자 이제까지 아들에게 한 말을 까맣게 잊고 조희를 순장하여 자기와 함께 저승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서모(낡은 사회에서 《아버지의 첩》을 이르는 말)를 불쌍히 여겨 아버지의 처음말대로 조희를 재가시켰다. 그후 아들은 아

갈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 제 생각이 있겠지요.

- ❖ 넙적넙적 받아물다—망설이거나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서슴지 않고 선뜻 다 받아안는다.  
어찌자고—《어찌하자고》의 준말.  
나이를 먹다—나이가 많아지다.  
장가가다—남자가 결혼하다.  
다 제 생각이 있다—사람마다 자기의 속생각을 가지고있다.

부지의 뒤를 이어 장수가 됐다. 외적이 쳐들어와 아들은 전장에 나갔는데 적장과 맞다들게 되었다. 침략전쟁으로 아골이 난 적장의 검술은 보통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꿈에서 《청초과》(풀이 많은 곳)라고 귀뜸해주는 백발로인의 말을 들었다. 아들은 그 말대로 그곳으로 적장을 유인해갔다. 아나나다를가 적장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자기중심을 잃고 비칠거리며 어찌지 못했다.

이 기회에 아들은 적장의 목을 따고 승리하였다. 알고보니 그 백발로인이 들판의 풀들을 모두 움켜여놓았으므로 적장이 거기에 걸채여 걸음마다 몸의 균형을 잃었던것이였다. 그 로인인즉 조희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자기 딸을 순장하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 재가까지 시켜준 아들의 그 은혜를 결초(풀을 움켜여놓음)하는것으로 갚아주었던것이였다.

## 거닐면서

정 심: 공원이 참 아담하지요.

금 혁: 응 그래, 꽃밭이랑 나무랄데가 없구만.

저기 의자에 가서 좀 앉을까?

정 심: 앉는것보다 거니는것이 좋지 않아요?

금 혁: 좋아, 그러지 뭐.

정 심: 저기 분수터에 가볼까요? 아니, 어데 눈을 팔아요!

금 혁: 아무것도 아니야.

정 심: 내 동물 몰라서요? 저기 팔을 끼고 앉아있는 처녀  
총각이 부러워서 그러지요?

❖ 아담하다—마음에 들게 맞춤하다.

나무랄데가 없다—흠집이나 부족점을 말하거나 탓할것이  
없다.

장의자—긴 의자.

하긴 그래—상대방의 말을 긍정하여 하는 말.

눈을 팔다—보아야 할것을 보지 않고 다른것을 보다.

팔을 끼다—서로 팔과 팔을 걸다.

◎ …는것보다 …는것이 좋지 않아요?

ㄱ: 앞에까지 나갈게 있어? 여기서 듣지 뭐.

ㄴ: 듣는것보다 보는것이 좋지 않아요?

○ 말해봅시다

ㄱ: 앉긴 뭘 앉겠다고 그래? 여기 서서 기다리지.

ㄴ:

[보충회화]

백번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습니다)

철 근: 좀 말해보라, 일을 잘해보자는게 진심이야?

광 철: 뭐라구?

철 근: 진심이면 영심일 왜 총동해? 여기를 떠나게 말이야.

유모아

### 공정하게 분배될것

철학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하게 분배된것은 아마 량심밖에 없는것  
같소.

친 구: 왜 그렇게 생각하오?

철학가: 사람들은 모두 자기한테 이것도 없소, 저것도 모자라오 하고  
불평을 부리지만 자기한테 량심이 없다거나 모자라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

광 철: 충동한다구?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철 근: 그게 충동이 아니구 뭐야?

광 철: 오해하고있구만. 이 사람아, 소도 말썽을 부리면 고삐를 늦춰줘야 한다고 하지 않아?

철 근: 날더러 너같이 영심이 비위를 맞춰주란 말이지?

광 철: 그야 필요에 따라 맞출줄도 알아야지.

철 근: 난 백번 죽어도 그렇게겐 못하겠어, 못하겠단 말이야.

❖ 소도 말썽을 부리면 고삐를 늦춰준다.(속담)-지나칠 때는 좀 양보해야 한다.

비위-기분이나 생각.

백번 죽어도-절대로.

[입말체문장]

- 어디서 저렇게 잘 생긴 처녀 하나 채왔어?(요, 습니까)

○ 복이 제발로 굴러들었지.(요)

레1: - 정말 곱게(잘) 생겼구만요.

○ 어디서 저렇게 잘 생긴 처녀(총각) 하나 채왔어?

레2: - 저런 재간둥이를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 복이 제발로 굴러들었지요.

❖ 잘 생기다-생김새가 훌륭하다.

채오다- ① 도적질하다.

② 쟁취하다.

재간둥이- 재간이 많은 사람을 귀엽거나 사랑스럽게 이르는 말.

복이 제발로 굴러들다-(안타까이 뛰어다니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저절로 생긴다.=호박이 저절로 굴러들다.

### ◇상식◇

## 잡지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잡지라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생겼는데 본래의 의미는 《창고》라는 뜻이다.

잡지라는 말이 처음 출판물로 불리우게 된것은 1731년 런던에서 출판된 《신사잡지》가 나왔을 때 부터이다. 그후에는 이것이 여러가지 잡지의 총칭으로 되었다.

처음에는 잡지와 신문이 형식상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후 신문은 시간적성격을 띠게 되고 잡지

는 소설, 잡문 등 오락적성격을 띠는 글을 신게 되어 내용상으로 뚜렷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형식상으로도 신문의 판면은 커진 반면에 잡지는 접는 형식으로 되었으며 장정도 하고 표지도 하여 책과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문과 잡지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속에서 뚜렷이 구별되게 되었다.

## 헤어지면서

정 심: 시간도 어지간히 흘렀는데 가보지 않겠어요?

금 혁: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정 심: 덕분에 휴식을 잘했어요.

금 혁: 누가 할 소릴 하는지 모르겠구만. 래일 시간을 낼수 있어?

정 심: 글썸...

금 혁: 래일 아침에 전화하겠어.

정 심: 좋아요.

금 혁: 내 바래주지.

정 심: 어디까지 말이에요?

금 혁: 어딘 어디겠어? 정류소지.

❖ 덕분에—고맙게 베풀어준것으로 하여.

어지간히—일정한 정도로.

어딘 어디겠는가? ...이지.—바로 그곳이다.

누군 누구겠는가? ...이지.—바로 그 사람이다.

뭐긴 뭐겠는가? ...이지.—바로 그것이다.

◎ 어딘 어디겠어, ...지.

ㄱ: 동무들이 어디 있어요?

ㄴ: 어딘 어디겠어? 교실이지.



○ 말해봅시다

ㄱ: 어디 가자고 그래요?

ㄴ:

[보충회화]

### 말해, 왜 말 못해?

교 원: 왜 학교를 꾸겨먹었어요?

학 생: 꾸겨먹지 않았습니다.

교 원: 꾸겨먹지 않았으면 뭘 했어요?

학 생: 뭘 한게 없습니다.

교 원: 꾸겨먹지도 않았대, 뭘 한것도 없대, 그런데 왜 안 나왔  
는가 말이에요?

학 생: 사실...

교 원: 말해요, 왜 말 못해요?

#### ▷알아두기◁

### 《말을 못하다》와 《말을 안하다》

《말을 못하다》는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하여》라는 뜻을 가지며  
《말을 안하다》는 《의식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병어리(붕아)는 《말을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

❖ 뚜꺼떡다—직장이나 학교, 모임 같은데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지  
않다.

…았/였/였대—《…았다고 해》의 준말.

〔입말체문장〕

— 그런 말을 제 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습니까)

○ 할 말두 못하겠어?(요, 습니까)

레1: — 왜 사랑한다구 말 못해?

○ 그런 말을 제 입으로 어떻게 하겠어?

레2: — 기분나빠도 참아. 어쨌든 아버지벌이 되는 사람이  
아니가?

○ 그렇다구 할 말도 못하겠습니까?

◎ …벌이 된다.(년령이나 직위가 그 어떤 사람과 거의 같다.)

① 년령이 그 어떤 사람과 거의 같다.

ㄱ: 이자 그분이 누구야?

ㄴ: 나에겐 삼촌벌이라고 할수 있지.

② 직위가 그 어떤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다.

ㄱ: 선생님벌이 되는분에게 무슨 말대답질이야?

ㄴ: 그게 무슨 대수야?

❖ 대수인가—큰 문제가 아니다.

##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어느날 글씨공부를 하러 떠났던 한석봉이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일곱해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석봉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살구꽃이 열번 피면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빨리 마치고 돌아왔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석봉은 어머니한테 자기의 글씨솜씨를 빨리 보여드리고싶었다.

빠른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던 석봉은 문앞에서 문득 멈추어섰다. 방 안에서 떡을 썰고있는 어머니의 칼도마소리가 새어나왔던것이다. 일찌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린 석봉을 키우시느라고 어느 하루도

### ◇상식◇

#### 《이름》의 어원

이름이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상마다에 지어서 붙인 말이다.

이름의 옛날말은 《일흠》이다. 이것은 《말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옛날말 《일흐다》의 말뿌리에

명사만들기 뒤불이 《디》이 붙어 이루어졌다. 그 《일흠》이 점차 《이름》으로 변하면서 아직도 그 뜻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것》, 《부르는것》을 나타낸다.

편히 쉬지 못하신 어머니.

글씨공부를 잘하고 오라고 석봉을 떠나보내던 그날처럼 어머니는 오늘도 떡장사를 하고계시었다.

(아, 어머니!)

석봉의 눈가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공부를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자.)

석봉은 어머니가 놀라지 않게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어머니!》

《아니, 이게 누구냐, 석봉아!》

어머니는 그사이 몰라보게 자란 아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다가 따지듯 물었다.

《왜 벌써 왔느냐?》

《글씨공부를 다했습니다.》

석봉은 자신있게 대답하며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엄한 눈길을 느꼈던것이다.

《그럼 벼루에 먹을 갈아라. 공부를 다했다니 어디 시험해보자.》

석봉은 보짐을 풀고 붓과 벼루를 꺼내놓으며 어머니를 기쁘게 헤드릴 좋은 때라고 생각하였다.

석봉이 글씨를 준비를 다 갖추자 어머니는 등잔불을 켜다. 방안은 캄캄하였다.

《너는 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방안에서는 어머니의 칼도마소리와 석봉의 글씨쓰는 소리만이 들렸다.

한동안이 지나서 어머니는 등잔불을 다시 켜다.

어머니가 써 떡은 하나같이 고르르왔지만 석봉이 쓴 글에는 곱지 못한 글자들이 있었다.

《이래가지고도 글씨공부를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석봉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막 미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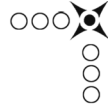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석봉은 그날 밤으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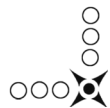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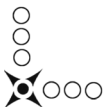
(어머니, 몸 건강히 기다려주세요.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한석봉은 이런 결심을 안고 글씨공부를 하러 다시 떠났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리하여 석봉은 마침내 온 나라에 이름난 서예가가 되었다.



## 7. 전화할 때



## 문 안 인사

정 심: 여보세요. 금혁동무 어머니이세요?

어머니: 예, 뉘신지요?

정 심: 제 정심이에요.

어머니: 정심이라구? 이게 얼마만인가?

정 심: 그간 잘 계셨어요?

어머니: 잘 있지 않구. 부모님이랑 다 건강하신가?

정 심: 건강하지 않구요.

어머니: 금혁일 찾겠지?

정 심: 아니예요. 그전에 앓으시던 어머니병이 혹시 도지  
지 않았나 해서요.

❖ 뉘신지—《누구이신지》의 준말.

부모님이랑—부모님을 비롯해서.

도지다—나아가던 병이 다시 더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다.

◎ 혹시 …지 않나 해서요.

ㄱ: 어딜 가려고 하니?

ㄴ: 혹시 집에 있지 않나 해서요.

○ 말해봅시다

ㄱ: 돈은 해서 뭘 하려구?

ㄴ:

[보충회화]

## 이젠 깨진 사발이야.(요, 비니다)

철 근: 이번주 휴식일에 등산을 하는게 어때?

명 철: 책임자가 승낙할까?

철 근: 승낙하구말구가 있어?

명 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철 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명 철: 이젠 깨진 사발이야. 이번주 휴식일에 새로 입직한

▷알아두기◁

### 《안녕하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를 전형적인 인사말로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사실 《안녕하십니까》는 늘 쓸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는 한 대상에 대하여 하루에 한번밖에 쓸수 없다. 더군다나 상가집이나 병문안을 가서 쓰면 절대로 안된다.

《안녕히 가십시오》와 《안녕히 계십시오》도 남는 사람, 가는 사람사이에 많이 써도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느낌을 가진다. 가까운 사람들사이에서는 《잘》을 써서 《잘 가》, 《잘 가세요》, 《잘 있어》, 《잘 계세요》와 같이 쓰면 친근감을 더해준다. 밤이 깊어 헤어질 때에는 《밤길에 조심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식으로 인사말을 할수 있다.



사람들을 위한 견습이 있대.

철 근: 견습은 다음주에 하기로 하지 않았어?

- ❖ 이젠 깨진 사발이다—① 결판이 나다.
  - ② 일이 다 틀어져서 다시는 수습할수 없게 되었다.

[입말체문장]

- 방금 말한 얘기가 뜬소문은 아니겠지?(요, 습니다)
- 그 얘긴 더 하지 말자.(요, ㅂ시다)

례1: - 이번에 동무가 대표로 참가한대요.

- 방금 말한 그 얘긴 뜬소문은 아니겠지?

례2: -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꽃을 위인이야.

- 그 얘긴 더 하지 맙시다.

- ❖ 방금-바로 지금 또는 조금전.
  - 뜬소문-정확한 근거가 없이 떠도는 소문.
  -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꽃을 위인이다-용통성이란 전혀 없고  
지내 고지식한 사람이다.
  - 얘기-이야기.

## 《왼쪽》의 어원

우리 말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왼손이 있는쪽을 왼쪽이라고 한다.

《왼쪽》의 《왼》은 형용사 《외다》의 말줄기 《외》에 규정토 《ㄴ》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외다》는 말은 지난날에 《바르다》는 말의 반대말로 많이 사용되었다.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바르지 않을 때, 무엇이 쓰기 불편할 때 레컨대 호미나 낫 같은것이 쓰기가 불편할 때 《외다》고 한다. 《왼쪽》의 《쪽》은 《이쪽, 저쪽, 안쪽, 바깥쪽》처럼 쓰이는 말인 《쪽》의 옛날말로 《쪽각》, 《부분》 등을 가리킨다.

《오른쪽》을 《바른쪽》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왼

쪽》이라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말과는 반대로 《무엇을 쓰고 리용하기가 불편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 또는 켜》이라는 뜻으로 생겨난 말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왼쪽》이라는 말은 《오른쪽》이란 말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오랜 기간의 동작과 노동과정에서 편리함과 불편함을 기준으로 하여 지어낸 말이라고 볼수 있다. 다른 나라의 말들에도 《왼쪽》이란 말이 《잘 맞지 않는 불편함》 등의 뜻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영어에서 《시니스터(sinister)》란 말에는 《왼쪽》이라는 뜻외에 《불길한, 재수없는》과 같은 뜻도 있다고 한다.

## 주문하면서

금 혁: 여보시오, 꽃매듭니까?

판매원: 예, 그런데 누굴 찾으시는지요?

금 혁: 꽃을 주문하려고 그러합니다.

판매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어디에 쓰시려는지요?

금 혁: 생일축하에 쓰려고 합니다.

판매원: 물론 치너겠지요?

금 혁: 그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판매원: 주소를 알려주세요.

금 혁: 아니, 5시쯤에 들리겠습니다.

❖ 주문하다—미리 의뢰하거나 신청 또는 부탁하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옳다 또는 맞다.

물론—더 말할것없이.

5시쯤—5시정도.=5시경

◎ …려고 한다.(…큰 생각이다)

ㄱ: 어딜 가려고 하니?

ㄴ: 집에 가려고 해.

○ 말해봅시다

ㄱ: 돈은 해서 뭘 하려구?

ㄴ:

[보충회화]

...를 좀 바꾸어줄수 없겠어?(오, 습니까)

찬 호: 여보시오, 삼흥회사 무역관리칩니까?

직 원: 예, 무역관리처 김정희 전화받습니다.

찬 호: 안녕하십니까? 삼광회사 김찬호 전화합니다.

직 원: 말씀하십시오.

찬 호: 미안하지만 정호동무를 좀 바꾸어줄수 없겠습니까?

직 원: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정 호: 김정호 전화받습니다.

찬 호: 나야 찬호야.

정 호: 난 또 누구라구. 무슨 일이제?

유모아

### 먹으면 죽는 꿀

옛날 어느 한 사찰에 욕심쟁이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어린아이를 종으로 두었는데 어느날 꿀을 먹다가 종에게 들켰다.

《이것은 너같은 어린애가 먹으면 죽는 약이다.》

스님은 꿀단지를 벽장속에 숨기며 말했다.

어린 종은 스님이 외출한 사이

에 그 꿀을 다 먹고나서 스님이 애용하던 벼루를 깨뜨렸다.

스님이 나더러봐 어린 종은 눈물을 툇랑툇랑 떨구며 말했다.

《스님, 제가 방안을 치우다가 잘못해서 귀한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단지안의것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있었어요.》

◎ 예, ... 전화받습니다.

ㄱ: 여보시오, 의학대학입  
니까?

ㄴ: 예, 의학대학 교원  
박철호 전화받습니다.

◎ 미안하지만 좀 ...아/어/여  
줄수 없는가?

ㄱ: 미안하지만 좀 시간을  
내어줄수 없습니까?

ㄴ: 어디 시간이 있어야지요.

틀린 말-옳은 말

페이지	.....	페이지
센티	.....	센치
킬로	.....	키로
그램	.....	그람
밀리(미터)	.....	미리(미터)
퍼센트	.....	프로
마이너스	.....	미누스
플러스	.....	플류스
인터넷	.....	인터네트
감자후라이	.....	감자튀기

[입말체문장]

— 거야 어려울게 없지.(요, 습니다)

○ 그렇다면 뭘 주저하고있어?(요, 습니까)

례1: — 조국에 가면 《우리 말》책을 좀 구해줄수 없겠  
습니까?

○ 거야 어려울게 없지요.

례2: — 내가 나서면 꼭 이길수 있는데.

○ 그렇다면 뭘 주저하고있습니까?

❖ 구하다-필요한것을 청하거나 얻다.

거야-《그것이야》의 준말.

꼭-조금도 어김없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저하다-머무적거리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다.

## 약 속

- 금 혁: 저녁 7시야. 잊지 말아야 돼.  
남 호: 그게 무슨 큰저라구 잊구말구 해?  
금 혁: 요즘 네 생각이 복잡한거 같아서 그래.  
남 호: 안할 걱정을 한다.  
금 혁: 걱정 안하게 됐어?  
남 호: 더 할 말이 없어? 바빠서 그래.  
금 혁: 그것 말고 뭐 전할게 있겠어?  
남 호: 그럼 전할 놓겠어. 잘 있어.  
금 혁: 저녁에 만나.

- ❖ 큰저라구—(《큰것이라고》의 준말로서) 큰 문제이라고.  
안할 걱정을 한다—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한다.
- ◎ 그게 무슨 큰저라구/이라구 …구말구 하는가?  
ㄱ: 추렴을 하자면 한사람당 10원씩은 내야겠어.  
ㄴ: 그게 무슨 큰저라구 내구말구 합니까? 내가 말지요.
- ❖ 추렴—여럿이 각각 돈을 내어 음식을 사먹는 일.  
||수박추렴, 참외추렴|추렴을 하다.
- 말해봅시다  
ㄱ: 우승하자면 훈련시간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ㄴ:

[보충회화]

그럼 전할 놓겠어.(요, 습니다)

남 편: 여보, 래일이 명절인데 온 가족이 놀러가지 않겠소?

안 해: 참 좋은 생각이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남 편: 난 뭐 일밖에 모르는 꼬장막대긴줄 아오?

안 해: 하두 놀라워서 그래요. 현대 어데 같가요?

남 편: 대동강반에 나가지요. 요즘 대동강반의 경치가 절경  
이라누만.

안 해: 그래요? 참, 철이네도 찾을가요?

▷알아두기◁

### 《여보》와 《오빠》

《여보》와 《당신》은 부부사이에서 쓰는 말이다. 물론 중년이나 장년의 남성들사이에서도 쓸수 있다.

이때 《여보》는 부름말로, 《당신》은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ㄱ: 여보, 오늘 저녁에 극장에 가는게 어땡소?

ㄴ: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녀성의 경우 《여보》대신에 《이보세요》라는 말을 쓸수 있고 《당신》대신에 《○○ 아버지》라는 말을 쓸수도 있다.

일부 녀성들속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인민의 민족풍습에도 맞지 않는 틀린 말이다.

남 편: 거야 물론이지. 거 철이 할머니두 함께 오라구 하는걸  
잊지 마오.

안 해: 잊을게 따로 있지 그걸 잊겠나요?

남 편: 당신이야 전적이 있지 않소.

안 해: 당신두 참, 그럼 전황 놓겠어요.

[입말체문장]

—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습니다)

○ 그속이야 누가 알겠어?(요, 습니까)

례1: — 저 사람이 왜 저리 헤덤빌까?

◇상식◇

### 세계에는 문맹자가 얼마나 있는가

유네스코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문맹자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1970년에 세계의 총 문맹자수는 7억 4 200만명이었는데 1980년에는 8억 1 400만명, 2000년에는 9억 5 000만명에 이르렀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문맹자들의 대부분이 물론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에 널려있지만 발전하였다는 미국에도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2 300만명의 사람들이 글을 보거나 쓸줄을 모른다.



○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레2: - 죽자살자하더니 왜 등을 돌려댔을까?

○ 그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 헤덤비다—공연히 서두르며 바삐 돌아치다.

영문—까닭이나 형편.

죽자살자하다—서로 사귀는데서 정을 주며 몹시 친하게  
지내다.

등을 돌려대다—싫어하거나 관계를 끊다.

그속이야—그 사람의 속생각이야.

누가 알겠는가—누구도 모른다.

## 옛이야기

### 문익점과 목화

문익점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목화씨를 들여다 널리 퍼지게 한  
사람이다.

문익점이 이웃나라에 갔을 때였다.

어느날 문익점은 넓은 밭에 구름같이 하얀 꽃들이 피어있는것을 보  
았다.

(이것이 목화라는 풀솜이구나!)

문익점은 탐스러운 목화송이를 쥐고 놓을줄 몰랐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잘사는 사람들은 비단옷을 입었지만 가난한 사

람들은 삼으로 짠 거친 베옷을 해입었다.

문익점의 눈앞에는 추운 겨울에도 삼베옷을 걸치고 오돌오돌 떠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목화씨를 가져다 고향에 심자.)

사실 이 나라에서 목화를 심기 시작한것은 거의 100년전 일이었다.

그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술한 봉건관료들이 여기를 다녀갔지만 누구도 목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문익점처럼 언제나 마음속에 나라와 백성을 안고 사는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목화씨를 가져간다는것은 험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이 나라에서는 목화씨를 절대로 다른 나라에 내가지 못하게 했다. 만약 몰래 가지고 가다가 들키는 날에는 엄한 벌을 받게 되어있었다. 그만큼 단속도 심하였다.

문익점은 밭에서 일하는 한 늙은이를 찾아갔다. 목화씨를 달라는 문익점의 말에 늙은이는 펄쩍 놀라며 안된다고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뜨거운 애국심을 지닌 문익점의 거듭되는 요구에 끝내는 목화씨 10알을 그에게 소중히 넘겨주었다.

그런데 목화씨를 가지고 그 나라 국경을 무사히 넘는것이 문제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깊이 생각하던 문익점은 붓대속에 10알의 목화씨를 넣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는것도 쉽지 않았다.

한번은 문익점이 말을 타고 가는데 미친듯이 달려오던 마차가 그가 탄 말과 부딪쳤다.

《어이쿠!》

문익점이 말잔등에서 굴러떨어지고 짐을 넣었던 상자는 산산조각이 났

다. 문익점은 황급히 달려가 상자에 들었던 물건들을 주어모았다. 그런데 목화씨를 넣은 붓이 보이지 않았다.

문익점은 가슴이 철렁하여 맨손으로 눈무지를 헤쳤다.

어느덧 손은 얼어서 별경게 되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눈속에 파묻힌 붓을 찾아냈다.

붓대에 묻은 눈을 털고 옷자락에 갸갸히 문태고난 문익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갸은 난관이 문익점의 앞을 가로막았으나 그 어떤 어려움도 나라와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꺾을수 없었다.

문익점은 붓대를 가슴에 품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봄 문익점은 친척에게 목화씨 다섯알을 주어 심게 하고 나머지 다섯알은 자기가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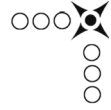
문익점의 밭에서는 겨우 두포기가 자랐으나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말았다. 문익점의 마음은 눈물이 나오도록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다행히도 친척의 밭에서 네포기가 자랐는데 그중 한포기에 열매가 달렸다. 하얀 구름같은 목화송이가 피어나고 거기에서 100알의 씨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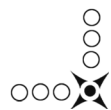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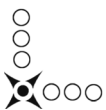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자라난 목화에서 받은 첫 씨였다.

3년후 문익점이 목화씨를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심게 하였더니 10년도 못되어 목화는 온 나라에 퍼지였다.

그때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목화에서 실을 뽑고 천을 짜서 질기고 따뜻한 무명옷을 해입게 되었다.



# 8. 상점에서



## 물 어 보 기

금 혁: 화초매대가 어딥니까?

안내원: 3층입니다.

남 호: 여기 무슨 안내판 같은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원: 들어오시면서 보시지 못한것 같구만요. 정문홀에  
    써붙였는데요.

남 호: 그래요? 미처 보지 못하고 말해서 안됐습니다.

안내원: 그럴수도 있지요.

금 혁: 그러니까 3층, 3층이겠습니다.

안내원: 예, 3층 왼쪽입니다.

❖ 화초매대—꽃을 전문으로 파는 매대.

    안내원—위치를 알려주는 직관관.

    미처—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아직 미치지 못한 모양. 제때에.

◎ 무슨 ...같은것이 있으면 좋겠다.

    ㄱ: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니?

    ㄴ: 무슨 화분 같은것이 있으면 좋겠어.

○ 말해봅시다

    ㄱ: 이 옷이 마음에 듭니까?

    ㄴ:

[보충회화]

이런 일은 서두르는게 아니야.(요, 비니다)

안 해: 저것 봐요. 정말 멋있지요?

남 편: 걸은 번드르르한데 속내는 모르겠어.

▷알아두기◁

### 소리같은 말

소리같은 말이란 소리는 같으나 뜻이 전혀 다른 단어이다.

소리같은 말은 어느 나라 말에나 다 있을수 있다.

우리 말의 소리같은 말은 다음과 같이 갈라볼수 있다.

○ 발음도 같고 맞춤법도 똑같은 소리같은 말

눈-사람의 눈, 내리는 눈, 감자의 눈

배-사람의 배, 타는 배, 먹는 배

차다-공을 차다, 날씨가 차다, 물이 가득차다, 시계를 차다

치다-눈보라가 치다, 주먹으로 치다, 거미줄을 치다, 닭을 치다

○ 발음은 같으나 맞춤법상으로 서로 다른 소리같은 말

거름: 거름-두엄, 걸음-발걸음

반드시: 반드시-꼭, 반듯이-기울지 않고 바르게

소리같은 말은 흔히 재담이나 수수께끼 같은데서 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뜻을 이해하는데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가려써야 한다.

안 해: 걸보기가 속보기라지 않아요.

남 편: 정말 사고싶어?

안 해: 사고싶지 않다면 왜 그러겠어요?

남 편: 가만, 이런 일은 서두르는게 아니야.

안 해: 어째서요?

남 편: 더 좋은것이 있을지 알겠어?

❖ 번드르르하다—① 윤기가 있고 매끈하다.

② 걸만 꾸미고 실속이 없다.

걸보기가 속보기—결과 속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함을 나타내는 말.

[입말체문장]

— 그렇게 건성건성 일해서야 되겠어?(요, 습니까)

○ 암만 잘하면 뭘 합니까? 눈에두 못 드는데.

레1: —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적당히 처리합시다.

○ 그렇게 건성건성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레2: — 딴 생각 말고 한번 일을 잘해봅시다.

○ 암만 잘하면 뭘 해? 눈에두 못 드는데.

❖ 건성건성 일하다—성의없이 걸발림식으로만 일하다.

딴 생각—다른 생각.

암만—아무리.

눈에두 못 든다—웃사람의 관심에 들지 못하다.

## 미주알고주알

우리 나라 민속세간중에는 방 안에 놓는 장농도 있다.

이 장농은 문짝을 포함하여 앞면과 특히 네귀모서리에 낫쇠, 은쇠 등 갖가지 합금판으로 수복글자도 새기고 장식쇠판을 정교하게 붙여놓음으로써 장농을 뒤게 나란히 놓고 그우에 비단 꽃이불까지 얹어 쌓아놓으면 집안이 환해진다.

장농이 더 멋이 있고 못하고 하는것은 장철(장식쇠붙이)을 어떤 모양으로 아름답게 형상하는가 하는데도 달려있지만 그보다도 장철의 《미두알》을 정교하게 뚫고 못의 《고두알》을 재간스레 잘 다스려서 구슬알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미두알에 딱 맞게 막아서 장철을 붙인것 같지 않게 판에서 돌아난것처럼 잘 붙이는데 크게 달려있다.

《미두알》이란 장철 네귀의 작은 못구멍을 말하고 《고두알》이란 낫으로 만든 농뿔의 꺾꽂이해 생긴 대가리를 이르는 말인데 이것들은 눈에 아물아물하게 안겨올 정도로 겨우 만질수 있게 작은것이어서 만들거나 꽃고 붙이고 하는 일들이 여간 말쑥고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이로부터 《매우 작고 꺾꽂이해 물건》 또는 《몹시 작아서 하기 말쑥고 까다로운 일》을 《미주알고주알》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전의되면서 주로 지나치게 소소한 일, 별찮은 일에 참견하면서 사리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미두알》이 《미주알》로, 《고두알》이 《고주알》로 된것은 입천정소리에서의 어음변화인것이다.



## 물건을 사면서 (1)

판매원: 어서 오세요. 뭘 사시겠습니까?

금 혁: 주문한 꽃을 가지러 왔습니다.

판매원: 아, 손님이세요? 꽃은 이미 준비해놓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금 혁: 좋구만요. 얼마입니까?

판매원: 40원입니다.

남 호: 내게 잔돈이 있어.

금 혁: 내는걸 보고도 그래?

판매원: 거스름을 받으십시오.

금 혁: 잘 쓰겠습니다.

판매원: 또 오십시오.

❖ 물다-값을 지불하다.

잔돈-1원, 10원과 같이 금세가 작은 돈.

거스름돈-돈을 지불한 다음 계산하여 남는 돈, 본인에게  
도로 내여주는 돈.=거스름.

◎ ...는걸 보고도 그러는가?

ㄱ: 창고장이 어뭇 갔나?

ㄴ: 저기 오는걸 보고도 그래?

○ 말해봅시다

ㄱ: 글을 다 썼소?

ㄴ:

[보충회화]

값을 좀 깎을수 없습니까?

손 님: 얼마입니까?

장사군: 190원입니다.

손 님: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장사군: 다른데 가보라요, 비싼게 아닙니다.

손 님: 값을 좀 깎을수 없습니까?

장사군: 꼭 사겠다면 좀 내릴수야 있지요.

손 님: 150원정도 합시다.

장사군: 그러면 본전도 안되겠는데요.

손 님: 본전도 못 찾고야 장사를 하나요?

장사군: 그럼 마수걸이를 한셈 치고 150원으로 합시다.

❖ 비싸다-값이 시세나 가치에 비하여 더 많다.

눅다-값이 일정한 기준보다 적다.=싸다.

값을 깎다-값을 내리다.

본전-상품을 구입하는데 들인 돈. 기업활동에서 밀천으로  
들인 돈.

마수걸이-물건을 팔기 시작하여 맨 처음으로 파는것.

◎ 꼭 …겠다면 …르수 있다.

ㄱ: 그 책을 좀 볼수 있습니까?

ㄴ: 꼭 보겠다면 보여줄수도 있지.

[입말체문장]

— 이젠 생활을 꾸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습니까)

○ 어디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않습니까)

례1: — 딸말인가요? 스물다섯을 넘겼답니다.

○ 이젠 생활을 꾸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유모아

### 어린애와 함께

하루는 뽀슈깰이 뽀제르부르그  
에 있는 한 공작의 가장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가 한 아름다운 처녀에게 춤  
을 추자고 청을 하자 그 처녀는  
오만스레 쳐다보며 쏘아붙이는것  
이었다.

《난 어린애와 함께 춤을 추지  
못하겠어요.》

이에 뽀슈깰은 성을 낼 대신  
웃으면서 슬쩍 받아넘겼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나  
는 아가씨가 지금 아이를 배고있  
는줄은 몰랐습니다.》

말을 마친 뽀슈깰은 허리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무도장을  
떠났다.

례2: - 일만 일이라고 하지 말고 휴식도 좀 하라고 하지  
지요.

○ 어디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 ❖ 생활을 꾸려주다-결혼시켜 가정생활을 하게 하다.  
일만 일이라고 하다-일밖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식◇

### 《사돈》의 유래

《사돈》이라는 말은 한자로 《살필 사, 조아릴 돈》자를 써서 《사돈》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나무그루터기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유래되었다.

고려때 변방에서 무관벼슬을 하던 윤관, 오연총이라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오랑캐들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장수들이었고 인정이 있는 사나이들이기도 하였다. 두사람은 서

로 걸친(사돈간으로서 친척관계를 맺었다는 뜻)한 사이인데다가 강을 사이에 두고 군막을 치고있어 서로 자기의 진을 돌아볼 때면 강기슭에서 만나군 하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술병을 들고 잠시 강가에 앉아 회포도 나누고 작전도 토의하군 한 것이 어느덧 하나의 일과로 되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강을 건널수 없게 되었다.

## 물건을 사면서 (2)

금 혁: 저기 저 상품을 좀 봅시다.

판매원: 이것 말입니까?

금 혁: 그 옆의것 말입니다.

판매원: 볼줄 아누만요.

금 혁: 좀 포장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두사람은 술병을 마주 들고 손인사를 하고는 그대로 강변의 나무그루터기에 주저앉았다. 먼저 윤판이 잔을 치며 소리쳤다.

《자, 내가 한잔 칠레니 함께 들자구!》

그러자 강건너에서도 마주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좋겠네. 나도 칠레니 어서 들자구.》

두사람은 서로 머리를 조아려 공대를 표시하고는 잔을 들었다. 그야말로 정다운 광경이었다. 군사들도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것은 두 장수의 위

용과 활약으로 국경의 정세가 무척 평온하였고 마음속으로 두 장군을 존경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두 장군의 류다른 《술놀이》는 어찌 보면 적들을 말없이 누르는 평화의 시위였는지도 모른다.

두 장군을 존대하던 군사들과 이웃마을의 백성들은 이들을 가리켜 《사돈》(그루터기에 앉아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전해져 후에는 며느리와 사위간의 두집사이를 《사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판매원: 물론이지요.

금 혁: 리봉까지 척 달아놓으니까 멋이 있는데요.

판매원: 손님이 좋아하는걸 보니 저도 기쁩니다.

금 혁: 자, 그러면 많이 파십시오.

판매원: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 볼줄 안다—사람이나 상품 등이 좋은가 나쁜가를 잘 알아본다.

척 달아놓다—보기 좋게 달아놓다.

◎ …까지 척 달아놓으니까 멋이 있는데요.

레: 간판까지 척 달아놓으니까 멋이 있는데요.

◎ … 말입니까?

ㄱ: 여보시오, 손님!

ㄴ: 저말입니까?

○ 말해봅시다

ㄱ: 그 책을 좀 봅시다.

ㄴ:

[보충회화]

들러췌으면 제때에 물어줘야지.(요, 하지 않습니까)

안 해: 요즘 그 사람이 왜 모르는척 할까요?

남 편: 췌 돈을 인차 물어주지 않았다고 그러췌지.

안 해: 돌려졌으면 제때에 물어줘야지요.

남 편: 물어주기야 물어줬지.

안 해: 그런데 왜 그래요?

남 편: 물어주는 본새가 틀려먹었다나.

안 해: 별치않은걸 가지고 따따부따하면서 그래요?

남 편: 글썸 말이야.

❖ 꾸다-돈이나 쌀을 후에 물어주기로 하고 빌리다.

돌려쓰다-《꾸다》를 에둘러 나타낸 말.

본새-말이나 동작의 됴됨이나 잡도리.

### ▷알아두기◁

## 《-네요》와 《-어요》

맏음토 《네》는 중년이상의 남성들이 일정한 사실을 알릴 때와 주로 처녀들이 일정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하여 감탄 또는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인다.

례: ○ 내 인차 가겠네.  
○ 야, 정말 멋있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네요》라는 말을 쓰고있는데 《-네요》는 여성들의 말투에 알림의 의미를 가진 《요》를 덧붙인것으로서 옛날 서울지방의 기생들속에서 쓰던 말법이다. 그러므로 《-네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요》라고 하여야 한다.

례: ○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네요. ×  
○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

틀러먹다-말이나 행동이 바르지 않고 뒤틀리다.  
 따따부따하다-옳다 그르다 하며 말다툼하다.

[입말체문장]

- 개발에 도토리신세지 뭐야?(요, 뽀니까)
- o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습니다)

례1: - 이번 행사때 그 사람만 쪽 빼놔단다.  
 o 그거야 개발에 도토리신세지 뭐예요?

◇상식◇

우리 말 발음의 풍부성

우리 말은 발음이 풍부하여 그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다 잘할수 있다. 그것은 우리 말에 21개의 모음과 19개의 자음이 있을뿐아니라 그 결합방식이 매우 다양한것과 관련된다.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 21개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378개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147개
조선사람들이 실지 발음할수 있는 음절은 3 192개이다.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2 646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보면 쉽게 알수 있다.	계: 3 192개



례2: - 동무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 알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 개밥에 도토리신세(속담)-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신세.

## 색채언어

자연은 다양한 색채의 세계라고 말할수 있을만큼 색채로 충만되어있다. 색채는 사람의 시각에 매우 예리하게 작용하여 강한 정서적느낌을 주며 사람은 또 이러한 반복적인 느낌을 통해 색채에 상징적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감정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색채와 사람사이에 맺어진 이런 정서적관계로부터 법칙성을 띤 색채의 의미로 사람들의 의사를 표현하는것을 색채언어라고 한다. 색채언어는 구두언어와 글자, 문자언어보다 그 발생년도가 더 오래며 그 역할도 매우 신기하고 이채를 띤다. 보통 사람들은 적색, 등색은 더운색계통이라고 하면서 정열을 돋구어준다고 하며 청색은 찬색계통으로서 침착성을 준다고 하였다. 실지 등색은 더운색으로, 정열을 주는 색으로 느껴지며 청색은 시원한감을 주고 이성적사고를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색갈은 또한 각이한 계급, 민족에게 각이한 상징적의미로 작용하고 쓰인다. 레컨대 옛날 동방에서는 황색을 고상한것으로 일러왔으나 서방에서는 그 색이 수치와 비루한것을 상징하였다. 동방철학의 《오행설》에서 색갈로 일정한 방위를 표시하였는데 청색은 동쪽, 백색은 서쪽, 적색은 남쪽, 흑색은 북쪽, 중심은 황색으로 표시하였는데 고구려무덤벽화의

《4신도》에서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붉은색), 북쪽에는 현무(거북에 뱀이 감긴것), 천정중심에 황룡을 그려놓은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유래로부터 지난날 동방에서는 황제들의 옷이 다 황색이었다.

그리고 서방에서 적색이 장례의식을 상징하였는가 하면 진홍색은 질투 또는 악마를 상징하며 분홍색은 건강을 상징한다.

우리 조선민족은 희고 연한색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흰색이 맑고 깨끗하며 소박한감을 주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색감이 고정불변한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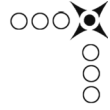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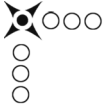
홍색은 처녀의 얼굴에서 건강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흰색은 비감을 표시하기도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흰색천으로 상례옷을 만들어 리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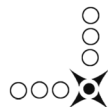
색채의 이런 상징적의미를 담아 오늘 사회적으로는 그 효과를 다양하게 리용하고있다. 레하면 교통신호등에서 붉은 신호는 서라는것, 푸른 신호는 건너가라는것, 황색신호는 기다리라는 표시로 쓰인다.

그리고 강하천량쪽의 붉은 신호등은 남쪽기슭을, 록색신호등은 북쪽기슭을, 적록색신호등은 안전항로를 표시한다.

위험물질분야에서 독해물은 남색, 연소물질은 붉은색, 폭발물 또는 위험계선은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 9. 병원에서



## 진찰을 받으며

의 사: 어디가 아릅니까?

금 혁: 갑자기 위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의 사: 웃옷을 벗고 여기에 누우십시오. 예, 좋습니다.  
내의를 가슴우까지 올리십시오.  
여기, 여긴 어떻습니까?

금 혁: 아이구, 아- 아픕니다.

의 사: 배에 가스가 찼구만요. 평시에 명치끝에 뭐가 매달린감은 없습니까?

금 혁: 있습니다. 그리고 막 답답합니다.

의 사: 체했구만요. 궤양도 있구요.

❖ 명치끝-가슴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있는 뼈의 아래끝.

매달리다-매여달리다.

답답하다-가슴이 시원하지 못하고 숨쉬기가 어렵다.

◎ ...아서/어서/여서 그런다.

ㄱ: 왜 그래? 어디가 아파?

ㄴ: 졸려서 그래.

○ 말해봅시다

ㄱ: 왜 그래?

ㄴ:

[보충회화]

어디가 편찮은게 아니야?(요, 비니까)

김선생: 어디가 편찮은게 아십니까?

문선생: 오솔오솔 추우면서 열이 납니다.

김선생: 열이 다 납니까?!

문선생: 감기에 걸린것 같습니다.

김선생: 밥맛은 있습니까?

▷알아두기◁

### 《차다》와 《춥다》

《차다》는 몸밖의 대기 또는 물체의 온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춥다》는 몸에 미치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다. 례를 들어 날씨는 《차다》고 하고 몸은 《춥다》고 한다. 그러나 몸의 부위와 관련해서는 《차다》는 말을 써야 한다. 례를 들어 얼굴, 귀, 손, 발 등은 《차다》고 한다. 정도가 심하면 《시리다》는 말을 쓴다.

그러므로 《귀가 춥다》, 《얼굴이 춥다》고 하는것은 틀린 말법이다.

그러나 《덥다》는 《차다》와 《춥다》와는 달리 대응하는 말을 가지지 않는다. 즉 몸밖의 대기도 《덥다》이고 몸에 미치는 느낌도 《덥다》이다.

문선생: 배는 고프는데 입맛은 딱 제졌습니다.

김선생: 그러다가 병을 기르겠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봅시다.

문선생: 선생 성화에 못 견디겠구만요.

❖ 오슬오슬—몸이 좀 떨릴 정도로 추운 모양을 나타내는 말.  
=오슬오슬.

입맛이 딱 제끼다—모든 음식이 쓴것 같아 먹기 싫어지다.

병을 기르다—치료를 제때에 받지 않아 병이 심해지다.

성화—몹시 귀찮게 계속 요구하는것.

◇상식◇

### 《동문서답》의 어원

《동문서답》이란 어떤 물음에 대하여 전혀 얼토당토않는 대답을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원래의 한자표기는 《독문섭답》이었다. 즉 《독》은 송아지라는 뜻이고 《문》은 묻는다는 뜻이며 《섭》은 두꺼비라는 뜻이고 《답》은 대답한다는 뜻이다. 결국 송아지가 《음매》 하고 우는데 왕칭갈이 두꺼비가 울어 전혀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어원이 망각되고 발음을 쉽게 하려는데로부터 《동문서답》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그 리해도 동쪽에서 물어보는 말을 서쪽에서 대답한다는 뜻으로 밖에 될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동문서답》은 그 말의 어원을 잘 알아야만 그 뜻도 참되게 리해할수 있다.

[입말체문장]

- 제 몸을 영 돌보지 않아 야단이야.(요, 입니다)
- 이러다간 사람 죽이겠어.(요, 습니다)

레1: - 김동문 어제도 집에 안 들어갔다지요?

○ 제 몸을 영 돌보지 않아 야단입니다.

레2: - 열이 몹시 납니다.

○ 이러다간 사람 죽이겠어.

❖ 영 돌보지 않다—전혀 관심하며 보살피지 않는다.

야단이다—큰일이다.

◎ ...아/어/여 야단이다.

ㄱ: 식사는 제대로 합니까?

ㄴ: 너무 잘 먹어서 야단입니다.

## 치료를 받으며

의 사: 침을 맞아본적이 있습니까?

금 혁: 아니, 없습니다.

의 사: 그대로 누워계십시오. 침을 맞아야겠습니다.

금 혁: 예? 침을 말입니까?

의 사: 놀라실건 없습니다. 한 뒤대 맞으면 되니까요.

금 혁: 아프지 않습니까?

의 사: 아픔을 참지 못하면야 병을 고칠수 없지요.

양말을 벗으십시오. 바지를 무릎까지 올리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금 혁: 제발 아프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전 아픔엔 끄떡  
못합니다.

의 사: 내가 좀 아프다니까 겁을 먹었구만요. 일없습니다.

❖ 뒤대—두대 또는 석대가량.

끔찍 못한다—몹시 좋아하다. 조금도 기를 펴지 못하거나

오금을 쓰지 못하다.

겁을 먹다—두렵거나 무서운 생각을 품다.

◎ ...아/어/어본적이 있는가?

ㄱ: 극장에 가본적이 있어요?

ㄴ: 그전에 한번 가봤어요.



○ 말해봅시다

ㄱ:

ㄴ: 먹어도 많이 먹었지.

[보충회화]

너무 조금해말라.(요, 십시오)

김선생: 아직도 아프십니까?

문선생: 그저 그렇습니다.

유모아

### 진 짜 재 간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기 좋아하는 한 부자가 있었다.

어느날 그는 하인에게 빈병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하였다.

《돈이 없이 어떻게 술을 살수 있습니까?》

하인이 묻자 그는 오히려 《돈을 가지고 술을 사는거야 누가 할줄 모르겠나? 돈이 없이 술을 사오는것이 바로 진짜재간이지!》라고 말하였다.

얼마간 지나서 하인이 돌아왔

다. 그는 병을 부자에게 넘겨주며 말하였다.

《술을 사왔소이다. 어서 마시 십시오!》

부자가 보니 빈병이었다.

《한방울의 술도 없는데 어떻게 마시라는거냐?》

하인이 뜰뜰 대답하였다.

《술이 있으면 누가 마실줄 모르겠나니까? 술이 없이 마시는것이 진짜재간이오이다!》

김선생: 걱정마십시오. 의사선생님이 인차 낫는다고 그랬 습니다.

문선생: 그런데 얼마나 걸릴것 같답니까?

김선생: 한 보름만 누워있으면 될거랍니다.

문선생: 보름이요?!

김선생: 너무 조급해마십시오. 그러면 몸에 해롭습니다.

❖ 그제 그렇다—이전과 같다. 차도가 없다.

인차—빨리.

(시간이) 걸리다—(시간이) 경과하다.

조급하다—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

해롭다—손해나 해독을 주는바가 있다.

[입말체문장]

— 내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한탓이야.(오, 입니다)

○ 그렇게 말하면 딱하지 않아.(오, 습니까)

례1: — 아무도 얼굴을 내밀지 않으니 모임은 다 했어요.

○ 내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한탓입니다.

례2: — 내 그 사람을 만나 말해주겠어. 그럴때면 짝 그만 두라구.

○ 그렇게 말하면 딱하지 않습니까?

❖ 얼굴을 내밀지 않다—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일을 쓰게 하지 못하다—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ㄴ탓이다—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씩 그만두다—아예 그만  
두다.

◎ 내가 …지 못한탓입니다.

ㄱ: 집안이 이게 뭐예요?

ㄴ: 내가 청소를 제때에 못  
한탓입니다.

### 틀린 말—옳은 말

가위바위보 …… 돌가보

쇠고기 …… 소고기

아내 …… 안해

위 …… 우

날짜 …… 날자

색깔 …… 색갈

건너다 …… 건느다

드디어 …… 드디여

달걀 …… 닭알

별이다 …… 별리다

## 처방을 떼면서

의 사: 어떻습니까?

금 혁: 땀했던것이 쑥 내려갔습니다.

의 사: 10년먹은 체증이 똑 떨어진것 같다는 말도 그래서 생긴겁니다.

금 혁: 예, 이젠 살것 같습니다.

의 사: 그러나 좀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금 혁: 전 정말이지 시간이 많지 못합니다. 매일 병원에 다닐 형편도 못됩니다.

의 사: 매일 병원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되니까요.

처방을 떼줄테니 약국에 가서 약을 타십시오.

금 혁: 고맙습니다.

선생님, 치료를 잘 받고 갑니다. 아프면 또 오겠습니다.

❖ 땀하다(가슴에 땀하다)-먹은것이 내려가지 않고 위에 머물다.  
10년먹은 체증이 똑 떨어지는것 같다(성구)-오래동안 걱정하던것이 순간에 다 없어지다.

◎ ...근 필요는 없다.

ㄱ: 꼭 병원에 가야 합니까?

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 말해봅시다

ㄱ: 전 남에게 욕할줄 모릅니다.

ㄴ:

[보충회화]

**요즘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습니까)**

김선생: 요즘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문선생: 일없습니다.

김선생: 식사도 변변히 못하신다던데.

문선생: 나야 무슨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 걱정은  
마십시오.

김선생: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은데 건강을 돌보셔야지요.

▷알아두기◁

### 《돌가보》와 《가위바위보》

《돌가보》는 《돌》, 《가위》, 《보자기》의 합침말로써 순서를 정할 때 쓴다. 일부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 말 단어만들기법칙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 말의 단어들이 보통 1-3개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진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문선생: 고맙습니다. 나때문에 여러가지로 폐를 끼쳐 정말 안됐습니다.

김선생: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문선생: 어디 생각 안하게 됐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김선생: 이 일이 어디 선생 혼자만의 일입니까?

❖ 너무—정도가 보통이상으로.

무리하다—① 정도가 지나치다.

② 힘에 겨운것을 억지로 하다.

변변히— ① 온전하게.

② 충분하게.

돌보다—관심을 두고 보살피다.

[입말체문장]

— 이전 같지 않아.(요, 습니다)

○ 몸이 늙는거야 어찌겠습니까, 마음이 늙는게 문제지.

례1: — 그 동무 요즘도 자주 찾아오니?

○ 이전 같지 않아.

례2: —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일감이 축나지 않는구만.

○ 몸이 늙는거야 어찌겠습니까, 마음이 늙는게 문제지.

❖ 그 동무—《애인》을 에둘러 나타낸 말.

자주-자꾸 또는 잦게.

축나다-량이 줄어든다.

나이가 있다-나이가 어지간히 많다, 젊지 않다.

◎ …아서/어서/여서 그런지 …지 않다.

례: 자주 먹어서 그런지 더 먹고싶지 않습니다.

◎ …는거야 어찌겠는가? …가/이 …는게 문제다.

례: 장난이 세찬거야 어찌겠습니까? 공부를 안하는게 문제지.

◇상식◇

### 《겨레》의 어원

겨레란 같은 피줄을 이어받은 인민이나 민족을 말한다.

단어 《겨레》는 《결》에 어원을 두고있다. 결은 나무결, 물결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짜임새가 일정하게 겹겹이 포갠 층을 이루면서 생기는 줄 또는 그 줄이 이루는 무늬를 말한다. 결의 특징은 짜임새나 모양이 하나 같으며 그것이 나란히 한선상에 있다는데 있다. 민족도 그 겹처럼 피줄이 같은 사람 즉 혈연적

및 언어적공통성에 기초하여 씨족, 부족, 종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지역적연계가 밀접해지는데 맞게 서로 교류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에 모여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겨레는 《결》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뒤불이 《개》가 붙어 《결개》로 되었다가 《날개》가 《나래》로 된것처럼 《크》뒤에서 《ㄱ》이 떨어져 《겨레→겨레》로 되었다.

## 옛이야기

### 의 좋은 형제

어느곳에 의좋은 두 형제가 살고있었다.

형과 동생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어느해 가을이었다.

벼가마니가 가득찬 창고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형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동생네를 좀 도와줘야지.)

그날 밤 형은 지게다리가 휘도록 벼가마니를 저다가 동생네 창고에 넣어주고 돌아왔다.

그런데 동생은 동생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니 우리것을 좀 가져다 주어야지.)

동생은 벼가마니를 한짐 저다가 형님네 창고에 갖다 놓고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창고를 돌아보던 형은 깜짝 놀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어제 밤에 동생네 창고에 벼가마니 한짐을 저다 주었는데 창고에는 그전 그대로 벼가마니가 가득 쌓여있었던것이다.

(참 이상한 일도 많지!)

동생도 창고를 돌아보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날 밤이었다.

또다시 벼가마니를 한짐씩 진 형은 동생네 집으로, 동생은 형네 집으로 떠났다.



그러던 형과 동생은 길 한가운데서 서로 마주쳤다.

《형님!》

《동생!》

형제는 서로 부르며 마주섰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제야 형과 동생은 어제 밤에 날라간 벼가마니가 제자리로 되돌아  
온 까닭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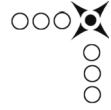
형은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것을 가져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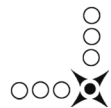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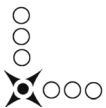
동생은 형에게 《아냐요. 우리것을 가져가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형제는 서로 정다운 다툼질을 하였다.

그들은 끝내 자기들의 벼가마니를 잃어지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  
에 없었다.



# 10. 운동장에서



## 운동하기 전에

금 혁: 경기하기 앞서 몸을 좀 놀려야겠어.

남 호: 늘 하는 운동인데 놀리기나새나.

금 혁: 모르는 소리.

남 호: 자, 그러면 준비운동을 합시다.

금 혁: 모두 남호동무 구령을 들어야겠어.

남 호: 체조대형으로 벌렸.

금 혁: 자 자, 말들을 그만해. 이건 놀음이 아니야.

남 호: 가슴운동부터 시작!

❖ 모르는 소리(모르는 소리를 하다)-맞지 않는 말.

벌렸-벌리라.

자 자-사람들의 생각을 집중시킬 때 하는 말.

놀음이 아니다-(정식으로 하는것을 전제로) 장난이 아니다.

◎ …기나새나.

ㄱ: 이 몸으로 어떻게 일한다고 그래? 병원에 가봐야겠어.

ㄴ: 병원에 가거나새나.

○ 말해봅시다

ㄱ: 맛을 좀 보자.

ㄴ:

[보충회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습니까)

철 근: 일이 끝난 후에 탁구나 칩시다.

영 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탁구생각을 다 하고.

철 근: 한다한다 하면서도 어디 시간을 낼수 있어야지요.

영 만: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철 근: 약속했습니다.

영 만: 약속하구말구가 있습니까?

철 근: 그럼 정각 5시에 탁구장에서 만납시다.

영 만: 예, 그럼시다.

▷알아두기◁

### 《쪽 냅시다》

여럿이 잔에 부어놓은 술을 《한꺼번에 다 마시자》는 뜻으로 《깜빠》 또는 《건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고유한 우리의 말법이 아니다. 이 경우 많이 쓰는 우리 말은 《쪽 냅시다》, 《쪽 따시다》이다.

❖ 몸이 근질근질하다—운동을 하고싶어지다.

정각—조금도 틀림없이, 바로 그 시각.

◎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습니까)

레1: ㄱ: 오늘 저녁 극장관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레2: ㄱ: 내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멋있지요?

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입말체문장]

— 천상 말을 해야 알지.(요, 앉습니까)

○ 다르게 생각지 말라.(요, 십시오)

레1: — 그래 경기에 나가겠답니까?

○ 천상 말을 해야 알지요.

레2: — 이젠 성 쌓다 남은 돌이라는거지?

○ 다르게 생각지 말라요.

❖ …답니까—《…다고 합니까》의 준말.

천상—아무리 해도, 언제 가야.

성 쌓다 남은 돌(성구)—더는 필요없게 된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 《손없는 날》

이 미신행위는 승려들의 성화가 많았던 옛 시기에 사람들이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한 지방에 승려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대사집이라면 빠짐없이 찾아가 사찰에 바치라고 하면서 쌀과 음식물들을 걸어갔다고 한다.

승려들은 이렇게 걸어간것들을 가지고 며칠동안 사찰에 모여앉아 진탕치듯 먹고 놀았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집들에서 대사를 승려들이 내려오지 않는 날들에 하군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승려들때문에 그런다고 말할수가 없어 있지도 않는 《귀신》과 련결시켰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빠앗아가는 손이 없는 날》, 《손해를 보지 않는 날》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그것이 《손없는 날》이라는 말로 줄었다고 한다. 이처럼 《손없는 날》이라는것은 승려들의 성화가 많았던 옛 시대에 사람들이 일부러 꾸며낸것이다.

우리 나라의 옛 문헌을 조사한데 의하면 역대 왕들의 대부분이 《손》이 있다는 날에 결혼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에 결혼하는 날을 《날받이》미신에 기초하여 택하거나 정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며 이 미신행위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지 못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업과 생활에서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따로 있을수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데 있다.

## 운동하면서

금혁: 뭘 해? 자, 이쪽으로!

남호: 옛다, 받아라.

금혁: 무슨 뿔을 그렇게 차?

남호: 발이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

금혁: 그러게 평시에 몸을 놀리랴구 하잖았어.

남호: 짬짬이 운동하기야 했지.

금혁: 할바엔 똑바로 하란 말이야.

남호: 여, 온다!

금혁: 제길, 놓쳤구나.

남호: 저치 날랜데.

❖ 옛다—무엇을 단념하거나 생각을 단정할 때 하는 말.

발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제 생각대로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제길—자기 마음대로 안될 때 하는 말.=제길할.

날랜다—매우 빠르다.=날쌌다.

◎ ...가/이 말을 들어줘야지.

ㄱ: 뭇들 하는거요?

ㄴ: 기계가 말을 들어줘야지요.

○ 말해봅시다

ㄱ: 무슨 글(글자)을 이렇게 씁니까?

ㄴ:

[보충회화]

그만하면 됐지 뭘 그래?(요, 미니까)

관람객1: 문지기가 정말 날쎄데요. 들어오는쪽쪽 잡아낸다  
는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관람객2: 그래서 문지기가 아닙니까?

관람객1: 그런데 저 10번이 문잡니다.

관람객2: 10번이요? 그만하면 됐지 뭘 그러니까?

관람객1: 좀 아쉬워서요. 속도는 좋은데 빼몰기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관람객2: 새삼스레 10번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하면서 그럴

유모아

## 두 장사군

두 장사군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대추를 팔고 다른 사람은 호두를 팔았다. 하루는 두사람이 장마당에 함께 나가 대추와 호두를 팔았다.

《대추 사시오. 큰 대추는 씨가 작고 작은 대추는 씨가 없습니다. 어서 사시오.》

대추장사군이 크게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

마끔 사는통에 잠간사이에 대추를 다 팔았다. 그결에서 그것을 본 호두장사군도 그가 하던대로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호두 사시오. 큰 호두는 씨가 작고 작은 호두는 씨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호두 사가는 사람이 없고 모두들 웃기만 하였다.



니까? 혹시 친척벌이라도 되는게 아닙니까?

관람객1: 아닌게아니라 저게 내 조카입니다.

❖ ...는족족-하는 차례로.

새삼스레-새로운것처럼.

아닌게아니라-어떤 사실이 진짜 그렇다는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 사실.

◎ ...는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ㄱ: 이번 경기에서 1등을 했다면서요?

ㄴ: 경기에서 1등을 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 그래서 ...가/이 아닌가.

ㄱ: 무슨 녀자가 저래? 찍하면 눈물부터 찢끔 짜니 말입니다.

ㄴ: 그래서 녀성이 아닙니까?

◎ ...면 됐지 뭘 그러는가?

ㄱ: 어머니 돈을 좀더 줘요.

ㄴ: 1 000원이면 됐지 뭘 그러니?

[입말체문장]

- 젓먹은 힘까지 내라.(요, 십시오)

○ 똑심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야.(요, ㅂ니다)

레1: - 제힘으론 어렵도 없습니다.

○ 젓먹은 힘까지 내라.

레2: - 아무리 뛰여도 결판이 어디 납니까?

○ 똑심만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 ❖ 어림도 없다—짐작조차 할수 없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젓먹은 힘까지 내다—잠재되어있는 모든 힘을 다 내다.  
 아무리—매우, 있는 힘과 재능을 다하여.  
 일자리가 나다—일한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다.  
 똑심—순수 육체적인 힘.

◇상식◇

### 표식표말의 유래

공원이나 도로주변, 옥지들에 가보면 꽃밭이나 잔디밭으로 다니지 말라거나 돌아가라는 등의 표식표말이 꽃혀있는것을 볼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표식표말을 프랑스어의 표현그대로 《에띠께뜨》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레법, 레이라는 뜻이다.

표식표말에 가까운 프랑스말은 《설명서》 또는 《게시판》이라는 뜻을 가진 《스티께뜨》인데 프랑스 왕 루이14세(1638-1715)때에 《스티께뜨》대신 《에띠께뜨》가 표식표말을 가리키는 말로 되었다고 한다.

당시 베르사이유궁전의 정원사는 정원을 아무리 정성껏 관리하여도 계속 어지럽혀놓기때문에 제대로 관리할수 없었다. 생각하던 끝에 그는 곳곳에 정원을 어지럽히지 말라거나 잔디를 밟지 말라는 등의 표말을 꽃아놓아 사람들이 정원질서를 지키도록 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표식표말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나 《에띠께뜨》에 써있는대로 하여야 한다는 루이14세의 명령이 떨어지자 누구나 다 이 표식표말을 《에띠께뜨》라고 부르며 그대로 하였다고 한다.

## 운동을 끝내고

금 혁: 남호, 수고했어.

남 호: 이거야 맥살이 나서...

금 혁: 꼭 이겨야 맛이야?

남 호: 이기지 못할바엔 경긴 왜 해?

금 혁: 이길 때도 있구 질 때도 있는거지. 그래서 경기가 아니가.

남 호: 경기장에서 큰소리칠 땐 잡아먹을것 같더니 어떻게 된거야?

금 혁: 그땐 그때구.

남 호: 누가 너하고 살졌는지 속개나 쓰겠다야.

❖ 맥살이 나다—지치거나 실망하거나 하여 기운이 풀리거나 의욕이 떨어지다.

큰소리치다—목청을 돋구어 욕을 하거나 신경질을 부리며 야단을 하다.

잡아먹을것 같다—몹시 성이 나서 해보다.

그때는 그때다—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너하고—너와.

속개나 쓰겠다—마음이 상하게 되는 때가 많다.

◎ 꼭 ...아야/어야/여야 맛인가?

ㄱ: 이 책도 보아야 합니다.

ㄴ: 꼭 봐야 맞습니까?

○ 말해봅시다

ㄱ: 이것 잡춰보세요.

ㄴ:

[보충회화]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련할려구.(오, 겠습니까)**

틀린 말-옳은 말	
계급장	견장
채소	남새
복어	마른명태
복어	보가지
개고기	단고기
보신탕	단고기국
양계장	닭공장
양돈장	돼지공장
볼펜	원주필
외치다	웨치다

직원1: 그래, 어떻게 됐  
습니까?

직원2: 해냈습니다.

직원1: 그렇게 애쓰더니 끝내 성공했구만요.

직원2: 다들 곁에서 도와주었기때문이지요.

직원1: 그렇게 고심했는데 어련할려구요.

직원2: 제가 뭐 한게 있겠습니까?

직원1: 겸손한 말씀.

직원2: 제가 한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을뿐입니다.

❖ 해내다-일을 능히 처리하거나 감당해내다.

애쓰다-무엇을 이루려고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

끝내-드디어 마침내.

어려하다-따로 넘려하지 않아도 잘될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다.

[입말체문장]

- 빌어먹을, 얼마나 힘든지.

○ 룡답을 해도 분수가 있지.(요, 않습니까)

례1: - 온몸이 땀투성이가 됐구만요.

○ 빌어먹을, 얼마나 힘든지.

례2: - 이번엔 문지거나 해볼까?

○ 룡답을 해도 분수가 있지.

❖ 땀투성이가 되다-온몸이 땀으로 젖다.

빌어먹을-자기가 하는 일이나 남에 대하여 매우 맞갖지 않을

때 혼자말처럼 욕을 하며 쓰는 말.=제길할.

분수가 없다-아무런 어림이나 짐작이 없다.=푼수가 없다.

## 두꺼비 돌에 치우듯

옛날 《돌》이란 애명을 가진 정승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사귄 두타비라는 친구가 있었다. 다 자라 《돌》은 정승까지 되었지만 두타비는 눈먼 소경이 되어 신세가 가궁하였다. 하는수없이 접술을 배웠는데 말재주가 없어 두타비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돌》은 두타비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려고 그와 남몰래 이런 약속을 했다.

### ◇상식◇

#### 국제모국어의 날

1952년 2월 21일 당시 파키스탄의 동부(오늘의 방글라데슈)에서는 벵갈어를 국가 및 정부기관의 공식언어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 시위자 5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1999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민족어의 사용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희생된 이 지역 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2월 21일을 《국제모국어의 날》로 정

하고 해마다 기념하기로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는 약 6 000종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인구의 97%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4%밖에 안되며 학교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중의 4분의 1도 안된다. 만일 효과적인 언어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0%이상의 언어가 지구상에서 사멸될수 있다고 한다.

《애 두타비아, 내가 조용히 우리 집 말을 동문밖의 도장골 세번째 나무에 매어놓겠으니 네가 점을 쳐서 그 말의 행처를 밝혀라. 그러면 내가 사람 몇명을 보내서 찾아오게 할테다. 이 소문이 퍼지면 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점치러 올게 아니냐.》

아니나다를가 점술에 《밝은》 두타비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그무렵 마침 왕이 옥대(옥으로 만든 띠)를 잃어버렸다. 왕은 두타비가 점술에 밝다는 소문을 듣고 신하를 보내어 급히 그를 불렀지만 워낙 점을 칠줄 모르는 두타비는 왕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큰죄로 될가봐 몹시 불안해하였다.

한편 왕의 옥대를 훔쳐낸 도적은 발이 저러나 다른 사람을 시켜 두타비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런데 두타비는 혼자말로 《불가설이로구나!》 하면서 한탄만 하고있었다. 이 뜻은 점을 잘 칠줄 모르니 왕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수 없구나.》이다. 두타비의 혼자말을 엿들은 렴탐군이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자 도적은 크게 놀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불개》이고 직업이 《서리》여서 결국 《불가설이로구나!》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도적의 이름과 직업까지 찍어 밝힌것처럼 된다.

그리하여 도적은 두타비에게 많은 퇴물을 고이면서 옥대가 대궐의 서쪽층계 밑에 있다는것만 말하고 제발 《불가설이로구나!》 하는 말은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두타비가 그의 말대로 옥대의 위치를 말하여 대궐의 계단밑을 봤더니 아니나다를가 옥대가 나왔다. 왕은 너무도 신기하여 《너는 옛날에 유명했던 무함, 렴분과 같은 사람이로다! 과인이 이제 다시 시험해보련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마침 변소에 갔다가 큰 두꺼비 한마리를 보고 그것을 신하를 통해 돌로 지질러놓게 한 다음 두타비에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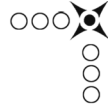
《내가 지금 무슨 물건을 얻었는데 알아내라. 맞히면 너에게 더 큰상을 주고 맞히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

두타비는 분하고 억이 막혀 땅을 치며 《돌》을 원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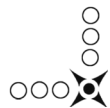
《<돌>때문에 끝끝내 두타비가 죽는구나!》

그 까닭을 모르는 왕은 《두타비》를 두꺼비로, 《돌》은 그 두꺼비를 누르는 돌로 알고 더 크게 경탄하면서 두타비에게 천금어치의 상을 주었다.





# 11. 극장에서



## 관람표를 사면서

금 혁: 표 2장 주십시오.

매표원: 몇등석을 사시겠습니까?

금 혁: 몇등석이라니요?

매표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몇등석의 표를 사시겠는가 말입니다.

금 혁: 그래요? 난 2층에 앉았으면 합니다.

매표원: 2층엔 1등석과 3등석이 있습니다.

금 혁: 1등석을 주십시오.

매표원: 1등석은 다 나갔습니다.

금 혁: 그럼 3등석을 주십시오.

❖ 등석—좋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가르는 자리의 등급.

다 나가다—더이상 남은것이 없다.

◎ …면 되지 않는가?

ㄱ: 영화관엔 언제 가겠니?

ㄴ: 이제 가면 되지 않니?

○ 말해봅시다

ㄱ: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 숙제는 언제 하겠니?

ㄴ:

[보충회화]

혹시 차버린게 아니야?(요, 비니까)

정 희: 요즘 영희와 만나는걸 보기 힘들구만요.

광 수: 걸을 안 주는걸 어쩍니까?

정 희: 혹시 차버린건 아니예요?

광 수: 차버렸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채웠습니다.

정 희: 채웠다구요?

광 수: 저한테 뭘 볼게 있습니까?

▷알아두기◁

### 《과세 안녕하십니까》와 《새해를 축하합니다》

해외동포들속에서는 설명절을 축하하여 《과세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 말은 옛날에 쓰던 말법으로서 오늘날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국인민들은 이런 말법이 있는줄도 모른다.

설명절을 축하하여 쓰는 전형적인 인사말은 《새해를 축하합니다.》이다.

이밖에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말을 쓴다.

정 희: 그렇다고 한번 사귀 남자를 쉽게 차버릴 처녀같진  
않은데.

광 수: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지 않습니까?

❖ 걸을 안 준다—자기와 가까이 못하도록 말을 안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사귀다—서로 어울려 가까이 지내다.

◎ …한테 뭘 볼게 있는가.(좋은 측면이 없다)

ㄱ: 요즘 말만 떼면 영육이 영육이 합니다.

ㄴ: 영육이한테 뭘 볼게 있다구.

[입말체문장]

— 한발 늦었어.(요, 습니다)

○ 이런 법이 어데 있어?(요, 습니까)

레1: — 표 남은게 있습니까?

○ 한발 늦었구만요. 두장 남았더랬는데 다른 사람  
에게 주었습니다.

레2: — 미안합니다. 이렇게 오는줄 모르고 우리끼리 보았  
습니다.

○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 한발 늦다—조금 늦다.

우리끼리-말하는 꼴을 한편으로 해서 우리들만 서로 함께.  
이런 법이 어데 있는가-자기 생각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말.

◇상식◇

###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은 오래동안에 걸쳐 기울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보람없이 되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송도에 황진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살았다. 그는 송악산에서 도를 닦는 승려들이 늘 자기의 청렴결백성을 자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한번 시험해보리라 마음먹고 자기의 수하기생 몇명을 사찰에 보냈는데 아나나다를 가 그들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이 주색잡기에 유혹되리오.》

라는 글발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자 황진이는 자기가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고 사찰의 좌상도승을 찾아갔다.

황진이가 부어주는 술에 곧드레만드레 취한데다가 그의 미모와 춤가락에 넋이 나간 좌상도승은 여태껏 닦았다는 《도》를 다 쥘버리고 끝내 일을 치고야말았다.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깨어나서야 좌상도승은 그만 무릎을 치며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하고 통탄했다고 한다.

## 관람하면서

금 혁: 자리가 어때?

정 심: 가운데 자리잡았으면 더 좋았겠어요.

금 혁: 보는덴 지장이 없을거야.

정 심: 췌, 조용해요. 막이 올라요.

금 혁: 좀 멀지 않아?

정 심: 멀다는걸 알면서 왜 이 자릴 택했어요?

금 혁: 와봤어야 알지.

정 심: 왜 안절부절해요? 무슨 잘못이나 저지른것처럼.

금 혁: 표를 떼다는게 그만 잘못 떼놔서.

❖ 안절부절하다—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몸이 괴롭거나 해서 어찌할바를 모르다.

막이 오르다—(무대를 가리고있던 막이 오른다는 뜻으로) 공연이나 어떤 일이 시작되다.

◎ …는덴 지장이 없을것이다.

ㄱ: 이거야 털털이가 아니가?

ㄴ: 가는덴 지장이 없을거야.

❖ 털털이—낯은 차나 자전거 같은것.

○ 말해봅시다

ㄱ: 저기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갈수 있을까요?

ㄴ:

[보충회화]

알고지냅니다.

과 장: 인사를 나누십시오.

영 수: 김영수라고 부릅니다.

직원1: 이렇게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철이라고 합니다.

직원2: 알고지냅니다. 김동훈입니다.

영 수: 안녕하십니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3: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리의석입니다.

영 수: 성함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만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알아두기◁

###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립장에서 하는 말인지 듣는 사람의 립장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3자의 립장에서 하는 말인지 잘 알수 없는 모호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는 《알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해야 정확한 말로 된다.

ㄱ: 안녕하십니까?

ㄴ: - 처음 뵙겠습니다. ×

-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

직원3: 손잡고 일해봅시다.

영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 ❖ 인사를 나누다—서로 인사를 하다.  
알고지내자—서로 알고 생활하자.

[입말체문장]

— 애매한 사람 욕하지 말라.(요, 십시오)

○ 내 말이라면 덮어놓고 쌍지팽이를 들고 나서.(요, 비니다)

례1: — 난 그가 그런 사람인줄은 정말 몰랐다.

○ 애매한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례2: — 그 사람이 반대했다면서요?

○ 내 말이라면 덮어놓고 쌍지팽이를 들고 나서거든.

❖ 애매하다—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꾸지람을 받아서 억울하다.

◎ 애매한 … 욕하지 말라.

례: 애매한 영육이만 욕하지 말라.

◎ …라면 덮어놓고 쌍지팽이를 들고 나서다.(무조건 반대한다.)

ㄱ: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ㄴ: 내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쌍지팽이를 들고 나선단 말입니다.

유모아

《아는걸 내놓고 다 몰라》

《너 이 술의 이름을 아니?》

《그거야 삼팡이 아니가.》

《넌 모르는걸 내놓고 다 알고 있구나.》

《그럼 넌?》

《나? 난 아는걸 내놓고 다 몰라.》



## 소감을 나누며

금 혁: 사람들마다 가극가극 하기에 무슨 재미에 보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구만.

정 심: 이젠 눈이 좀 뻘었어?

금 혁: 트지 않으문. 음악도 그래, 무용도 그래, 무대배경도 그래, 이걸 완전히 예술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구만.

정 심: 그러게 내 뻘었어?

남 호: 뻘었게?

정 심: 동문 좀 뜨다고 하잖았어요.

남 호: 확실히 난 좀 모자라는것 같애.

정 심: 나처럼 뻘했다간 큰일나겠어요.

❖ 눈이 뜨다—세상물정을 알게 되다.

모자라다—지식, 기술, 힘, 능력 등이 요구하는 정도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

뻘하다—정신이 몹시 얼떨떨하다.

◎ ...지 않으문.

ㄱ: 극장에 가긴 가겠어요?

ㄴ: 가지 않으문.

○ 말해봅시다

ㄱ: 이 길로 갈수 있을까요?

ㄴ:

[보충회화]

좋은 말씀들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기 자: 영화를 보신 소감이라 할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수 있겠습니까?

관람자1: 이 격동된 심정을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기 자: 이 영화를 처음 보셨습니까?

관람자1: 아닙니다. 이번까지 세번째입니다.

기 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영된 첫날부터 매일 보셨  
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관람자1: 예, 그렇습니다.

관람자2: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연출대본으로부터 배우들의  
연기형상과 촬영, 음악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  
이나 다 나무랄데 없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자1: 낯놓고 기욱자도 모르던 수수한 농촌녀성이 혁  
명의 길에 나서는 과정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  
으키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좋은 말씀들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 낯놓고 기욱자도 모른다—글자를 전혀 모른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입말체문장]

— 쉽지 않은 사람이야.(요, 8:14)

○ 다시 보게 되누만.(요)

예1: — 셋째딸도 동포청년에게 시집보냈답니다.

○ 정말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2: — 어디 가서 딴 직업을 찾고말아야지.

○ 다시 보게 되누만.

❖ 쉽지 않은 사람이다—(흔히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다시 보게 된다—생각했던것과는 다르다.

▷알아두기◁

### 《오레미》와 《올케》

《오레미》란 오빠나 남동생의 안해를 누이가 이르는 말이다.  
《오레미》는 《올에미》로 이루어져있는데 《올어미》가 변한 말로서 뜻 자체는 어머니보다 어린 사람이라는것이다.

《오레미》란 말외에 《올케》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것은 사투리이다.

이와 같은 말로 《오래비》도 있다. 이 말도 《올애비》로 이루어져있는데 《올아비》가 변한 말로서 아버지보다 어린 사람 즉 오빠라는 뜻이다. 《오래비》는 보통 낮춤으로 쓰이는데 중년이상의 남자에게는 보통 《오라버니》가 쓰이며 높임으로는 《오라버님》을 쓴다.

## 놀고먹던 꿀꿀이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산기슭에 아담한 초가집 한채가 있었는데 이 집에는 황소와 말, 멍멍이와 야옹이 그리고 수탉과 꿀꿀이가 살고있었다.

어느날 집주인은 혼자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내 생일날에는 놀고먹는 집짐승을 하나 잡아야지.》

이 말을 엿들은 야옹이가 얼른 뛰어나와 짐승들에게 알려주었다.

집짐승들은 모두 눈이 둥그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무래도 우리 다 모여서 의논해봐야겠다. …》

황소는 집짐승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집짐승들은 누가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지 의논하였다.

먼저 말이 경충 일어서서 말하였다.

《난 주인을 등에 태우고 다니며 또 무거운 짐도 싣고 다니지. 그러니 놀고먹지 않아. 그렇지? 푸르르-》

말은 고개를 번쩍 쳐들고 짐승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다음엔 황소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밭도 갈고 달구지도 끝면서 이 집의 힘든 일은 도맡아하거던. 그러니까 뼈젓해. 음매-》

황소는 점잖게 앉았다.

다음은 야옹이가 냉큼 나섰다.

야옹이는 앞발로 수염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도 놀고먹지 않아요. 깊은 밤에도 자지 않고 주인집 쌀독을 지키며 쥐를 잡거든요. 그렇지요? 야옹-》

집짐승들은 모두 야옹이의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끄덕하였다.

누만 껌벅거리며 말없이 앉아있던 멍멍이도 성큼 일어났다.

《나는 나쁜 놈들이 열씬 못하게 밤낮 주인집을 지켜주고있으니까 죽을  
넘려가 없어. 멍멍-》

뒤따라 수탉이 긴목을 빼들고 말하였다.

《나는 새벽마다 집주인을 깨워주니까 놀고먹지 않는단다. 꼬끼요-》

이제는 꿀꿀이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꿀꿀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말이 없었다.

밤낮 놀고먹으면서 쿵쿨 잠만 잤으니.

《애 꿀꿀아, 넌 왜 말이 없니?》

꿀꿀이는 주먹같은 눈물을 툭툭 떨구며 말하였다.

《난 암만 생각해봐야 한 일이 없어. 매일 놀면서 먹기만 했어. 그러니까  
죽을 놈은 나밖에 없구나. 아이쿠! 꿀꿀-》

그리하여 집주인의 생일잔치상에는 놀고먹던 꿀꿀이가 오르게 되었다.

◇상식◇

## 《공부》의 어원

공부는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주공부에서 유래한 말이다.

주공부란 《불도를 열심히 닦는  
다》는 뜻이다. 그중에서 특히 공  
부라고 하는것은 참선에 전력하는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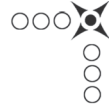
《선어록》에 공부에 관한 기록  
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마  
음가짐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공부는 간절하게 해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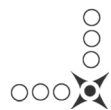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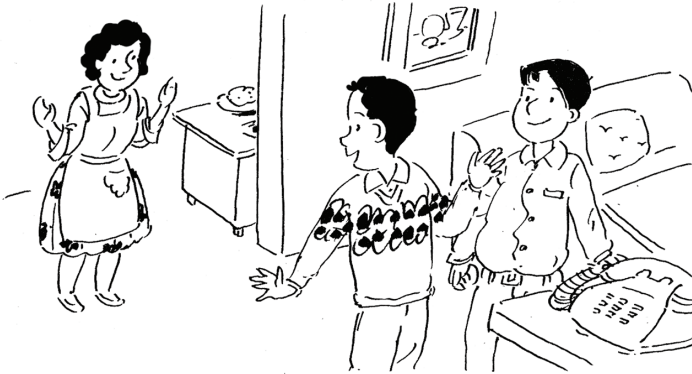
공부할 때는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부할 때는 오로지  
앉으나서나 의심하던것에 집중  
해야 한다.》

오늘날 공부는 학문을 배워 익히  
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교육제  
안에서 배우는것만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  
해야 하는것이다.



## 12. 동무의 집에서



## 집앞에서

금혁: 계십니까? 정심동무 어머니 계십니까?

정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금혁: 잘 있었어? 어머니н 계시겠지?

정심: 계시지 않구요. 그런데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남호: 그저 마음뿐이요.

정심: 어머니, 금혁동무랑 왔어요.

### ◇상식◇

#### 말을 할 때 삼가해야 할 10가지

1.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묻거나 부탁하는것.
2. 때없이 시계를 보거나 상대방의 아래우를 훑거나 한 부위를 유심히 살피는것.
3. 발을 떨거나 손짓을 하거나 땀 곳을 보는것.
4. 코를 풀거나 귀 또는 이발을 쑤시는것.
5.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듣는것.
6. 서있는 사람에게 아래사람이 앉아서 말하는것.
7.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여들어 제 말만 하는것.
8. 말을 채 듣지 않고 문을 닫거나 전화를 끊거나 자리를 뜨는것.
9. 막역한 사이라고 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지나친 룡담을 하는것.
10. 불일이 끝났다 하여 인사도 없이 훌쩍 가버리는것.

정심 어머니: 그래?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감탄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

◎ …지 않구.

ㄱ: 식사는 했습니까?

ㄴ: 하지 않구요.

○ 말해봅시다

ㄱ: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까?

ㄴ:

[보충회화]

어떻게 여길 다 왔어?(오, 습니까)

김선생: 혹시 이 댁에 박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선생: 김선생이 아니십니까?

김선생: 박선생,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박선생: 어떻게 여길 다 오셨습니까?

김선생: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제가 집을 헛갈린게 아니  
였구만요.

박선생: 저의 집을 용케 찾으셨습니다.

김선생: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선생: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김선생: 여기도 좋습니다.

박선생: 귀한 손님을 밖에 세워놓다니요?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갑시다.



❖ 댁-존대하여야 할분들과 관계되는 집이나 가정을 높이어 이르는 말.

헛갈리다-갈피를 잡을수 없게 뒤섞이다.

만나뵈다-《존경하는분을 만나다.》라는 뜻으로 대상을 높이어 이르는 말.

[입말체문장]

- 어떻게 어려운 걸음을 했어?(요, 습니까)

○ 옛친구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들렸어.(요, 습니다)

예1: -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조선어성구 몇가지◁

- ① 몸집이나 크기는 작아도 능력은 있다는것을 나타낼 때  
작아도 고추알
- ② 무관심성을 나타낼 때  
원눈으로도 안 본다
- ③ 대상에 비해 매우 보잘것이 없음을 나타낼 때  
새발의 피
- ④ 좋은 일을 해주고도 욕을 보았을 때  
떡주고 뽀뽀맞기

○ 어떻게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까?

레2: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옛친구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들렸습니다.

❖ 어려운 걸음을 하다—곤란하거나 힘든 걸음을 하다.

옛친구—사귀던 오랜 친구 또는 지난날에 사귀던 친구.

◎ ...를/을 좀 ...자고 들렸다.

ㄱ: 어떻게 오셨습니까?

ㄴ: 도움을 좀 받아서 들렸습니다.

## 이야기를 나누며

정심 어머니: 그새 왜 움짱 안했나?

금 혁: 시간을 낸다는게 어디 말처럼 됩니까?

정 심: 대학동창이에요, 김남호라고.

남 호: 어머니님, 훌륭한 따님을 두었습니다.

정 심 어머니: 낳긴 내가 낳았어두 나야 뭘 한게 있나요?

정 심: 여기에 나왔으세요.

금 혁: 여기도 좋은데 뭐.

정심 어머니: 앉아서 이야기들 하라구.

남 호: 뭘 하느라고 그러십니까? 잠깐 앉았다 가겠습니다.

정 심: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지 않아요.

- ❖ 움짱 안하다—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시간을 내다—일정한 동안 자신을 바치다.  
따님—딸을 높이어 이르는 말.  
섭섭하다—마음이 서운하거나 불만스럽다.

◎ …는데 어디 말처럼 됩니까?

ㄱ: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ㄴ: 담배를 끊자고 노력은 하는데 어디 말처럼 됩니까?

### 유모아

## 부자와 화가

한 부자가 화가를 청해다가 자기의 초상을 그리게 하였다. 그림을 다 그리자 부자는 약속된 액수의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 리유인즉 《그려놓은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화가는 그 초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얼마후 화가는 개인전람회를 열고 그 초상에 《도적》이라는 이름을 달아 전시해놓았다. 전람회에 왔던 한 사람이 그림을 보고 《도적》을 알아보았다. 그는 부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초상

이 《도적》이 되어 전람회에 나타났더라고 알려주었다.

부자는 격분하여 전화로 항의하였다.

화가는 태연하게 말하였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린 초상이 당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할수없이 약속했던 액수의 보수를 주고 그 초상을 사 가지고 왔다. 그리고 초상에 《자선가》라는 이름을 달았다.

○ 말해봅시다

ㄱ: 이 노래를 한번 잘 불러봐요.

ㄴ:

〔보충회화〕

그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습니다)

김동무: 우리끼리니 하는 말인데 그 두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무: 모를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김동무: 한때 죽자살자 하더니 요새 왜 쓴의보듯 하는지.

한동무: 혹시 다룬게 아닙니까?

김동무: 물론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더니...

한동무: 속단하지 맙시다. 싸움끝에 정이 든다고 이제 그  
들의 관계도 풀리겠지요.

❖ 우리끼리니—너와 내가 있기때문에.

한때—어느 한 시기.

쓴의보듯 하다—쓸데없는 물건처럼 버려둔채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속단하다—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판단하다.

〔입말체문장〕

— 한마디 하지.(요, 시지요, 십시오)

○ 별로 얘기거리가 못돼.(요, 비니다)

레1: - 이거 맨승맨승해서 술맛이 있나?

○ 그럼 한마디 하시지요.

레2: - 무슨 연설을 하고있는것 같애. 듣고 가지 않을래?

○ 별로 얘기거리가 못돼.

❖ 맨승맨승하다-보충적인 맛이 없이 단순하다. 취한 기분이 조금도 없이 정신이 멀쩡하다.

별로-따로 특별히.

얘기거리-이야기감.

### 속 답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말을 좋게 하여야 남이 자기에게 말을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을 잘해야 한다는 말.

- 말은 보래고 떡은 떴다.

(말을 전할 때는 자꾸 보래여지고 음식을 전할 때는 자꾸 줄어들다는 뜻으로) 말을 잘 가려들어야 한다는 말.

-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란 순식간에 먼데까지 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말.

- 말은 락해서 다르고 툇해서 다르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의 표현여하에 따라 들을 맛이 아주 다르다는 뜻.

## 집을 나서면서

금 혁: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어?

남 호: 글썸 영치가 무겁다 했지.

정 심: 왜 벌써 일어나세요? 더 앉았다 가세요.

정심 어머니: 왜들 그러나? 더 놀지들 았구.

금 혁: 어머니, 잘 놀고 갑니다.

정심 어머니: 이거 안됐구만, 특별히 대접한것이 없어서.

남 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잘 놀았습니다.

금 혁: 더 나오지 마십시오.

정 심: 잘들 가세요.

❖ 일어나다—일어서다.

영치가 무겁다—① 한곳에 지긋이 앉아있다.

②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느리다.

벌써들, 왜들, 들지들, 잘들—그러한 성질, 상태, 움직임 등의  
임자가 둘이상임을 나타낸다.

◎ 잘 …고 간다.

ㄱ: 왜 벌써 일어서십니까?

ㄴ: 잘 놀고 갑니다.

○ 말해봅시다

ㄱ: 영화를 잘 보았습니까?

ㄴ:

[보충회화]

## 종종 들리라.(요, 십시오)

주 인: 제가 바래워드리지요.

손 님: 무슨 먼길을 간다고 그러십니까?

주 인: 아무려면 이 밤길을 혼자 보낼수야 없지요.

손 님: 그러지 말고 밤도 깊었는데 들어가보십시오.

주 인: 혼자서 밤길에 일없겠습니까?

손 님: 일없습니다. 늘 견던 길인데요 뭐. 신셀 많이 지고

▷알아두기◁

### 《곱지 않습니다》와 《안 곱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안/못》을 동사와 결합시켜 《안 간다》와 같이 할뿐아니라 《안/못》을 형용사에도 붙여 《안 곱다》와 같이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법이다.

《안/못》은 동사와만 결합하여 쓰이고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례1: 공부를 안합니다. (못합니다.) ○

례2: 꽃이 안 곱습니다. (못 곱습니다.) ×

그러나 《…지 않다/…지 못하다》는 동사와도 형용사와도 다 잘 결합하여 쓰인다.

례1: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

례2: 꽃이 곱지 않습니다. (곱지 못합니다.) ○

갑니다.

주 인: 신세랄게 있습니까? 종종 들리십시오.

손 님: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주 인: 밤길에 조심하십시오.

❖ 아무려면—그렇다고 할지언정.

종종—가끔 또는 때때로.

◎ 무슨 …을/를 …니다고 그러는가?

ㄱ: 책이라도 좀 봐야지.

ㄴ: 무슨 책을 본다고 그러십니까?

◎ …지 말고 …라.

ㄱ: 어머니, 그럼 가보겠어요.

ㄴ: 덤비지 말고 매사에 조심해라.

◎ …랄게 있는가?

ㄱ: 수고 많았습니다.

ㄴ: 수고랄게 있습니까?

[입말체문장]

— 기어코 안고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습니까)

○ 끝장을 봐야지.(요, 하지 않습니까)

례1: — 아무래도 다시 써야 하겠어.

○ 기어코 안고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레2: - 또 실패했는데 이젠 어떡할까요?

○ 끝장을 봐야지요.

❖ 아무래도-아무리 하여도 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기어코-반드시, 마침내 또는 끝끝내.

안고 씨름하다-그것 하나를 해내려고 노력하다.

실패하다-잘못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노력이 헛되이 되다.

끝장을 보다-마지막 끝을 보다. 끝까지 해내다.

◇상식◇

### 옹 고 집

《옹고집》은 아주 심한 고집을 말한다. 남의 충고나 의견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내대는 것 또는 그런 성질을 《고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옹》자가 붙어서 보통고집이 아닌 아주 지독스러운 고집을 나타낸다.

옛날에 《옹》가성을 가진 사

람이 어찌나 고집이 셋던지 옹가의 고집이라면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지독스러운 고집을 《옹생원의 고집》, 《옹생원의 옹고집》이라고 하었다고 한다. 그후 차츰 그것이 《옹고집》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 수기

# 공 지

《현실은 소설보다 기이하다.》

이 말을 그날처럼 깊이 느껴본적은 없었다.

그날은 여름방학소조가 시작된 직후였다.

소조에서 연습을 끝내고 전차에 오른 나는 흐리멍덩한 의식속에서 지정도서 《경숙이에게》를 읽고있었다.

석양녘인데도 태양은 전차의 창문을 통해 마지막발악이라도 하듯 내 등에 따가운 빛을 내리쬐인다. 단조로운 전차의 흔들림에 어느새 글자가 개미들의 행렬처럼 보이던 그때 흰하던 책의 페이지가 갑자기 꺼매졌다.

나는 인차 누군가가 머리우에서 내가 읽는 책을 묵묵히 주시하고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올려다볼 용기가 없어 그냥 책을 읽어갔다.

그때였다.

《조선글로 씌여진 책을 읽고 배울것이 있어?!》

거치른 목소리가 내 머리우에 떨어졌다.

조심히 고개를 드니 한 사나이가 내려다보고있었다.

술에 취한듯 벌거우리하게 상기된 얼굴, 소매를 걷어올린 허름한 작업복, 혈관이 두드러진 굵은 팔...

나는 말 못할 공포감에 휩싸여 다시 책에 눈길을 주었다.

그 사나이는 사나운 목소리로 재차 소리질렀다.

《야, 조선글로 쓴 책에서 배우는것이 있냐 말이다. 대답해봐. 어쩡가. 너 조선사람이지.》

나는 그만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둘레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들이

나의 몸을 사정없이 찌르는것 같았다. 내 얼굴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달아올랐다.

허나 나는 입술을 깨물며 꼭 참았다.

《너도 그 저고리란 옷을 입고 다니는가?! 뭐야, 그 옷은…》

(아!… 저고리를 두고 비웃는구나. 우리 저고리를…)

어릴적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겨온 저고리!

저고리, 그 말은 언제나 나에게 민족의 얼을 깊이 심어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교상한 저고리를 깔보고 더럽히고 웃어댔다.

나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당신은 왜 사람을 모욕합니까?!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데 뭐가 우습다는겁니까?

당신은 조선민족의 역사와 풍습을 알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예상치 않던 반격때문인지 그 사나이는 잠시 주땃거렸다. 나는 계속 들어대었다.

《우리 글, 우리의 저고리는 민족의 넋이고 긍지입니다. 그 넋을, 그 긍지를 우리더러 버리라는겁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것처럼 귀중히 여기는지, 그것이 멸시당할 때의 우리 마음을 당신은 순간이라도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단숨에 여기까지 말해버린 나에게는 사람들의 시선도 안 보였고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직 푹푹히 이야기하고싶은 마음뿐이었다.

실실 웃던 그 사나이의 얼굴에서는 벌써 장난기도 웃음도 사라졌다.

나는 그가 진정한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 늘 보고 외우던 우리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더듬으면서 이야기했다.

《을사5조약》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걸어 온 피눈물나는 역사를, 《창씨개명》으로 제 성과 이름마저 가질수 없었고 《조선교육령》으로 것처럼 사랑해오던 모국어, 조선말까지 빼앗겼던 수난의 역사를...

흥분으로 하여 나의 어조는 열기를 띠었다.

《당신은 압니까? 유럽나라들 특히 도이칠란드에서는 저들이 범한 전쟁의 죄악을 다 후세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떠합니까?

역사교과서에서 몇페이지 안되던 과거죄행도 없애버리고있지요. 그러다나니 역사의 객관적사실이 전해지지 않아 당신처럼 타민족과 역사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당신들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허다한 이 사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화를 떠드는 일본인데 자기 사회에 있는 제일조선인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

이렇게 말을 해가는 사이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나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울리었다.

입을 꼭 다문채 짝소리도 못하는 그 사나이의 표정은 처음과 전혀 달랐다. 상기되었던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었다.

어느덧 전차가 역함에 닿아 문이 열렸을 때 그는 가늘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만 오레와 기까징야.》(미안하다. 나는 귀화인이야.)

그리고는 내렸다.

(아니, 귀화인이라니…)

꼭 일본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는 조선사람이었다. 그럼 마지막에 한 그 한마디에 담겨진 뜻은? 내가 한 말속에서 그는 무엇을 찾았을까?

물음표만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속에 어느새 내릴 역에 닿았다.

종잡을수 없는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급하게 쫓아오는 발자국소리…

나는 또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가봐 저도 모르게 긴장해졌다.

《저… 미안합니다.》

녀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올테면 오라는 각오로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까 전차칸에서 피륙 보았던 일본녀고생이었다.

《야, 참 장하구만요. 조선학교 학생이예요?》

그 녀학생의 흥분된 어조에 나는 그저 《예.》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아까 전차칸에서 다 들었어요. 내가 교과서에서 못 배우는 진실하고 귀중한 이야기였어요.》

조선학교에서는 참 잘 배워주는군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해 그리도 긍지를 가지고 뽐뽐이 이야기하는데 난 무척 감동됐어요. 우리 같은 고급부생인데도 나는…》 하며 그는 물감을 들인 손톱을 감추고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리고는 수줍은듯 웃으며 《다시 만나요. 안녕히!》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나는 어안이 빙빙하여 인사말도 못하고 멀어져가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전차칸에서 그리고 방금 있던 일로 하여 나의 심정은

착잡했다.

남의 일처럼 여기던 일을 내가 직접 겪게 되다니?

사실 저 일본고교생은 조선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그 사나이는?

나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자기 국적과 민족, 결국 자기 근본을 버린  
그 사나이!

그러고도 살아가는 데서 아무 후회도 없을가?

진정 편안하고 행복하기만 할가?

아니다.

그는 분명 버리지 말아야 할것을 버린것때문에 못내 마음이 꺼리였고  
그래서 우연히 만난 조선글을, 치마저고리를 모질게 시비하고 모욕했던것이  
아닐가?

그렇다.

그는 결코 행복할수 없다.

《국적을 버리니 살기 좋다.》고만 할수 없는 일본사회에서 떳떳한 조선  
사람의 모습을 본 그는 자기의 근본을 버린 수치감을 깨달았을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 진짜 자기 모습을 고백한것이 아닐가. 또 그  
래서 그 일본고교생도 것처럼 감동한것이고...

하다면 근본을 버리지 않는것, 민족을 지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응  
당하며 진실한 일인가! ...

그날의 현실은 나에게 소설보다 많은 교훈을 주었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긍지를 안고 오늘도 전차를 타  
고 학교로 간다.

## 우리 생활과 평양문화어

---

저 자	박사, 부교수 어창수
편 집	원 주 철
장 정	박 봉 혁
교 정	안 순 광
내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10월 7일
발 행	주체103(2014)년 10월 11일

---

7-1227 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414-89-8